김정일장군님은
조국통일의 구성!
김정일장군님을
통일대통령으로!

6.15공동선언은
조국통일의 이정표!
우리 민족끼리
통일의 문을 열자!

2002년 3월 4일 월요일 ≪통일아리랑≫편집위원회 32호

2월 16일 경축행사에 관한 공보

한국민족민주전선 중앙위원회 주체91(2002)년 3월 1일

민족의 태양이신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장군님의 탄신절을 맞으며 한국민족민주전선 중앙위원회에서는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장군님의 탄신절을 경축하기 위한 기간을 정하고 2월 1일부터 23일까지의 기간에 여러가지 경축행사들을 성대히 진행하였다.

한국민족민주전선 중앙위원회와 각 도, 시위원회들은 준엄한 지하투쟁의 상황에서도 위대한 장군님에 대한 열화와 같은 흠모와 충성심이 넘쳐흐르는 가운데 2.16 경축보고회들을 진행하였다.

보고회장들에는 만민의 태양으로 영생하시는 경애하는 **김일성**동지와 21세기의 태양이신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동지의 초상사진이 정중히 모셔지고 장군님의 탄생일을 열렬히 축하하고 충성을 다짐하는 현수막 등이 걸려있었다.

경축보고회들에서는 보고가 있었다.

15일 한민전 중앙위원회에서 진행된 경축 보고회에서는 위대한 장군님께서 태양의 위업을 빛내이실 백두광명성으로 솟아오르신 것은 5천년 민족사에 특기할 대행운이고 조국과 민족의 창창한 미래를 열어놓은 일대 역사적 사변이였다면서 만민의 다함없는 축원속에 장군님의 탄신절을 뜻깊게 경축하게 되는 민족적 영광과 행복에 대해 긍지높이 지적하였다.

보고회에서는 혁명의 성산 백두산에서 탄생하시어 항일대전의 불길속에서 성장하시고 반미대전의 포화속에서 영장의 슬기와 담력을 키우신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은 천출위인의 자질과 풍모를 완벽하게 지니시고 주체위업의 계승완성을 위한 혁명활동역사를 광휘로운 금문자로 수놓아오신 사상과 영도의 천재이시라고 지적하고 그분께서 이룩하신 불멸의 업적에 대하여 높이 칭송하였다.

보고회에서는 특히 위대한 장군님께서 인류사상 처음으로 수령영생위업을 최상의 경지에서 빛나게 실현하시고 제국주의연합세력의 발악적인 고립압살책동속에서도 추호의 흔들림없이 특출한 영도실력과 백승의 선군정치로 한반도의 평화와 민족의 안전을 수호하시고 새 세기 이북의 강성대국건설과 민족적 대번영의 앞길을 열어주시였다고 격조높이 강조하였다.

보고회에서는 천리혜안의 선견지명과 애국애족의 대용단으로 민족자주의 원칙이 구현된 6.15남북공동선언을 마련하시어 새 세기 통일의 이정표를 세워주시고 조국통일의 앞길에 전환적인 국면을 열어놓으신 위대한 장군님의 업적은 시대와 민족사와 더불어 영원불멸할 대업적이라고 지적하였다.

보고회에서는 경애하는 장군님은 견결한 혁명적원칙성과 무비의 담력, 비범한 지략과 특출한 정치실력으로 역사반동의 역풍을 쳐몰아내고 세계정치를 주도해나가시는 희세의 정치원로이시라면서 장군님계셔 조국통일과 인류자주위업의 승리는 확정적이며 새 세기는 영광찬 **김정일**세기로 빛날 것이라고 확신에 넘쳐 강조하였다.

각 도, 시위원회들에서 진행된 경축보고회들에서는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의 성스러운 60성상의 역사는 민족의 자주권과 존엄을 굳건히 수호하시고 민중의 행복을 위해 온갖 노고와 헌신의 대장정을 걸으시며 조국의 통일과 민족의 부강번영, 인류자주위업의 승리를 위해 모든 것을 다바치신 절세의 애국자, 위대한 영도자의 영광스러운 역사라고 일치하게 지적하고 위대한 장군님을 민족의 영수, 21세기의 태양으로 높이 받들어 모시고 그분의 필승불패의 향도따라 조국통일위업실현에 더욱 줄기차게 매진할 굳은 결의들을 피력하였다.

경축보고회들에서는 한민전 성원들과 각계 애국민중의 열화와 같은 충성의 한마음을 담아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장군님께 삼가 드리는 축하문과 편지, 맹세문들이 채택되었다.

한편 한민전 각급 조직들과 애국운동단체들에서는 경축행사기간에 기념강연회, 연구토론회, 비디오시청, 도서 및 사진전, 노래모임 등 다양한 정치문화행사들을 자체 실정에 걸맞게 조직진행하였다.

기념강연회, 연구토론회들에서는 위대한 장군님께서 60성상 조국과 민족, 시대와 인류앞에 쌓아올리신 불멸의 업적에 대해 높이 칭송하고 주체위업의 영원한 태양따라 조국통일을 실현하는 길에서 장군님과 뜻과 운명을 같이하는 순결의 동지, 신념의 동지로 되며 6.15공동선언실현의 선봉장, 결사관철의 투사가 될 자기들의 굳은 결의를 토로하였다.

한민전의 전위투사들과 애국운동단체 성원들은 위대한 장군님의 혁명활동노정을 담은 비디오시청과 장군님의 도서 및 사진전을 통해 천출위인이신 **김정일**장군님의 위대성을 더욱 깊이 터득하였다.

한민전 중앙위원회와 각급 조직들에서는 평양에서 거행된 2.16경축 중앙보고대회의 실황을 녹화하여 시청하는 모임들을 2월 15일부터 19일까지 진행하고 파쇼의 탄압이 앞을 가로막는 엄혹한 상황에서도 민족의 태양 **김정일**장군님의 불멸의 업적과 그분의 이민위천의 인덕정치, 특히 장군님의 선군영도 7년간의 혁명실록을 부각시켜 광범위하게 소개선전함으로써 이 땅에 굽이치는 **김정일**열풍을 더욱 고조시켰다.

(7면에 계속)

공보

1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장군님의 탄생일인 2월 16일 경축행사에 관한 공보

위대한 김일성주석님 노작

2 조국통일의 3대원칙에 대하여 (2)

세기와 더불어

4 3장 8절 차광수가 찾은 길 (2)

칭송

6 지구의 한끝까지
6 평양의 아침
6 조선 인민의 일심단결

한국민족민주전선

7 3월 2개의 한미합동군사훈련 동시진행
7 구국의 소리 뉴스 주체91 3월 2일
8 거세게 일고 있는 반부쉬반미열풍

조선중앙통신

9 백두산장군의 기백 – 노동신문 정론 주체 91, 2월 28일

김일성종합대학 방송강좌

12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께서 선군정치사상을 명시

아리랑뉴스

12 북–미관계 악재 부를 미 인권보고서
12 미 민주당, 부시정부 대테러전 확대 비난
12 전투기 사업, 압력에 밀리나
13 대학생, 정치인과 대화 – 이회창 한나라당 총재
13 이총재 ≪미끄럼≫, 여야 격차 줄어
14 대학생들 도심시위 ≪교육재정 확충≫ 요구
14 10기 한총련 임시 중앙위
14 ≪친일명단 발표 잘했다≫ 66%

운동강좌

15 전략적 통일전선과 민족해방혁명의 이론문제 (7)

광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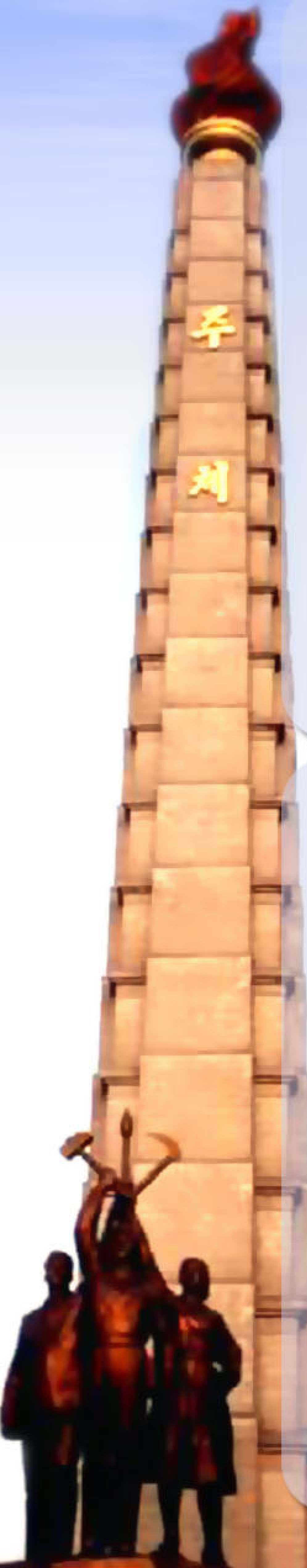
15 PDF자료집 ≪반고이즈미≫

조국통일3대헌장

16 북남당국자들간의 협상, 7.4 남북공동성명 (2)

조국통일의 3대원칙에 대하여 (2)

북과 남 사이의 고위급 정치회담에 참가한 남조선 측 대표들과 한 담화 / 1972년 5월 3일, 11월 3일



민족의 대 단결을 이룩하는데서 또한 중요한 것은 북과 남이 서로 상대방을 비방중상하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단결하고 합작하려면 서로 존중하여야지 비방 중상하여서는 안됩니다. 지금처럼 서로 상대방을 비방 중상하는 일을 계속하면 북과 남이 가까워질 수 없으며 오히려 간격이 더 벌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북과 남은 서로 욕질을 하면서 비방 중상하는 것부터 없애야 합니다.

민족의 대 단결을 이룩하는데서 북과 남 사이의 경제적 합작을 실현하는 문제도 매우 중요합니다.

공화국북반부에는 풍부한 자원이 있고 발전된 중공업이 있습니다. 남조선은 그전부터 경공업토대를 일정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북과 남이 경제적으로 합작하고 유무상통하면 당면하게 나서는 경제문제들을 더 잘 해결할 수 있으며 다른 나라의 자본을 끌어들이지 않고 자체의 힘으로 민족경제를 빨리 발전시켜나갈 수 있습니다. 북과 남이 합작하여 민족경제를 발전시키면 우리 나라는 일본이나 그밖에 발전되였다고 하는 다른 나라들보다 더 잘 사는 나라로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대외관계분야에서도 북과 남이 공동으로 나가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민족의 단결을 시위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북과 남이 다같이 민족을 사랑하고 조국을 통일하려는 입장에 선다면 사상과 제도, 정견과 신앙의 차이가 있다 하더라도 민족적 대 단결을 도모할 수 있다고 봅니다. 지금 사상과 제도가 서로 다른 나라들과 민족들도 친선관계를 맺고 좋게 지내는데 하나의 핏줄을 이은 같은 민족끼리 사상과 제도가 다르다고 하여 단결하고 합작하지 못할 조건이 없습니다.

공산주의를 신봉하는가, 민족주의를 신봉하는가, 자본주의를 신봉하는가 하는 것은 민족적 대 단결을 이룩하는데 장애로 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남조선에 있는 민족주의자들과 자본가들을 반대하지 않습니다. 남조선의 자본가들은 거의 다 민족자본가들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기부터 민족자본가들에 대하여서는 보호하는 정책을 실시하여왔습니다. 우리는 나라의 통일을 위하여 민족주의자들과 민족자본가들을 포함한 남조선의 각계각층과 단결하고 합작하여나갈 것입니다.

셋째로, 조국통일은 무력행사에 의거하지 않고 평화적 방법으로 실현하여야 합니다.

우리는 같은 민족으로서 북과 남 사이에 싸움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나 갈라진 조국을 평화적으로 통일하여야 합니다. 조국통일이 평화적으로 실현되지 못하고 조선에서 또다시 전쟁이 일어난다면 우리 민족은 큰 재난을 겪게 될 것입니다.

지금 세계의 열강들도 자기들끼리는 싸움을 하지 않고 서로 좋게 지내려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미국대통령 닉슨이 중국을 방문하였는데 그는 앞으로 한 세대동안 서로 싸우지 말고 평화를 유지하는 것이 좋겠다는 말을 하였습니다. 그는 중국의 만리장성을 돌아보고 나서 어떠한 장벽도 세계의 사람들을 갈라놓지 말아야 한다는 말도 하였습니다. 닉슨의 중국방문결과에 발표된 중국과 미국 사이의 공동 콤뮤니케를 보면 미국은 이때까지 승인하지 않고 있던 평화에 대한 5개 원칙을 승인하였습니다. 미국이 평화에 대한 5개 원칙을 승인한 것은 좋은 일입니다. 물론 미국사람들이 자기가 한 말을 어떻게 행동에 옮기는가 하는 것은 두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제국주의자들은 말은 말대로 하고 행동은 그와 다르게 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닉슨이 중국에 가서 한 말이 진심에서 나온 것인가 아닌가 하는 것을 똑똑히 알 수는 없습니다.

우리의 ≪로동신문≫은 닉슨의 중국행각을 논평하면서 닉슨이 만리장성을 돌아보고 한 말이 진심이라면 무엇 때문에 우리 나라의 한복판에 만들어놓은 군사분계선을 없애려 하지 않으며 ≪엠피≫라고 쓴 쇠바가지를 쓰고 거들거리는 미군병사들을 걷어가려 하지 않는 가고 썼습니다. 나는 이 논평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세계의 열강들도 싸우지 않고 서로 좋게 지내자고 하는데 하물며 같은 민족끼리 싸움을 해서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같은 민족끼리 서로 싸우지 말아야 하며 조국을 평화적으로 통일하여야 합니다.

북과 남 사이에 싸움을 하지 않고 조국을 평화적으로 통일하려면 무엇보다도 북과 남이 가지고 있는 군대를 줄여야 합니다. 나는 북과 남의 군대를 대폭 줄여야 한다는 것을 이미 공개연설에서 여러 번 천명하였습니다.

군대를 줄여야 북과 남 사이의 긴장상태를 완화할 수 있으며 군사적 부담도 덜 수 있습니다. 지금 북과 남의 군사적 부담이 매우 큽니다.

우리는 다 같이 노력하여 우리 나라를 북과 남으로 갈라놓고 있는 군사분계선도 없애야 합니다.

지금과 같이 군사분계선을 사이에 두고 쌍방의 많은 무력이 서로 대치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전쟁의 위험을 면할 수 없습니다. 지금과 같은 상태에서는 군사분계선일대에 있는 어떤 연대장이나 사단장이 잘못하여 한곳에서 총소리를 내면 쌍방이 서로 불질을 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싸움이 붙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매우 위험한 일입니다.

앞으로 북과 남이 잘 협의하여 서로 무력을 사용하지 않을 데 대하여 담보하고 그것을 실천에 옮기면 군사분계선일대에 있는 쌍방의 군사시설들과 군사인원들이 필요없게 될 것이며 군사분계선 자체도 없앨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 북과 남이 각각 자위를 주장하고 있는데 서로 상대방을 반대하기 위한 ≪자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북과 남은 힘을 합쳐 외래침략을 반대하기 위한 자위를 하여야 합니다.

우리 공화국의 자위는 어디까지나 우리 민족에 대한 외래침략을 반대하기 위한 자위입니다. 우리는 자기 나라와 자기 민족에 대한 외부세력의 침략을 절대로 허용할 수 없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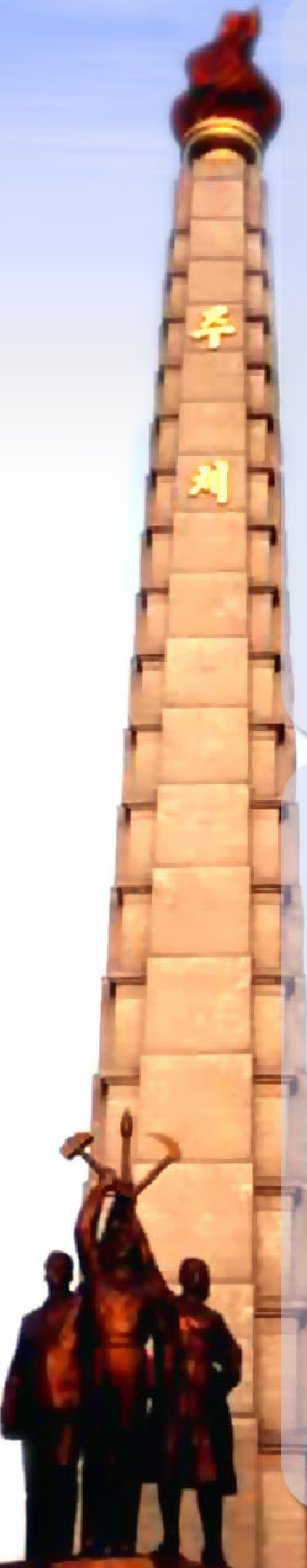
미제국주의자들이 우리 공화국의 영해에 무장간첩선 ≪푸에블르≫호를 침입시켰을 때 우리의 인민군해병들은 그 간첩선을 나포하였습니다. 이것은 조국을 보위할 사명을 지닌 인민군대의 응당한 자위적 조치였습니다. 그런데 미국놈들은 우리에게 용서를 빌 대신 오히려 항공모함 ≪엔터프라이즈≫호를 비롯한 숱한 무력을 동해일대에 끌어다 놓고 우리를 위협 공갈하였습니다. 이것은 우리 민족의 자주권에 대한 난폭한 유린이었으며 엄중한 도발이었습니다. 우리는 미국놈들의 위협과 압력에 조금도 굽어들지 않았습니다. 미국놈들이 숱한 무력을 끌어들이면서 싸움을 일으키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놈들과 싸울 결심을 단단히 하였습니다. 우리가 위협과 압력에 굽어들지 않자 미국놈들은 싸움을 일으키지 못하고 그냥 달아났습니다. 그때 만일 미국놈들이 싸움을 일으켰더라면 우리 민족은 또 한차례의 전쟁을 겪게 되었을 것이며 오늘 이렇게 북과 남의 당국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앉아 평화적인 회담을 할 수도 없을 것입니다.

앞으로 어떤 외래침략자가 우리 나라를 침략한다면 북과 남은 힘을 합쳐 침략자들을 물리쳐야 합니다. 전체 조선민족이 힘을 합친다면 그 어떤 침략자도 능히 쳐 부실 수 있습니다.

우리는 공동의 노력으로 북과 남 사이의 군사적 대치상태를 없애고 긴장상태를 완화함으로써 조선에서 다시는 전쟁이 일어나지 않게 하여야 하며 조국을 평화적으로 통일하여야 합니다.

우리는 이번 담화에서 북과 남 사이의 중요한 공통점을 찾았으며 가장 원칙적인 문

외세의 간섭이 없이 자주적으로 통일을 실현하며 사상과 이념, 제도의 차이를 초월하여 민족적 대 단결을 도모하며 갈라진 조국을 무력행사에 의거하지 않고 평화적 방법으로 통일할 데 대한 세 가지 원칙은 우리 조국의 통일문제를 해결하는데서 출발점으로, 기초로 됩니다.



제에 대하여 합의를 보았습니다.

외세의 간섭이 없이 자주적으로 통일을 실현하며 사상과 이념, 제도의 차이를 초월하여 민족적 대 단결을 도모하며 갈라진 조국을 무력행사에 의거하지 않고 평화적 방법으로 통일할 데 대한 세 가지 원칙은 우리 조국의 통일문제를 해결하는데서 출발점으로, 기초로 됩니다.

이 세 가지 원칙에 기초하여 나라의 통일문제를 해결하자는 데 대하여 당신도 찬성하고 또 남조선최고당국자도 찬성할 것이라고 한 것만큼 우리는 조국통일 3대 원칙에 대하여 완전한 합의를 보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나는 오늘 담화를 통하여 북과 남 사이에 조국통일의 3대 원칙이 합의된 데 대하여 매우 만족하게 생각합니다.

북과 남이 공동으로 협의하고 견해의 일치를 본 조국통일의 3대 원칙은 조국통일문제를 우리 민족의 지향과 요구에 맞게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정당한 원칙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이 3대 원칙에 기초하여 나라의 통일을 이룩하여야 합니다. 당신이 이 3대 원칙을 기초로 삼고 나가겠다고 맹세하였는데 그렇게 하면 통일문제해결에서 나서는 다른 문제들도 성과적으로 풀 수 있으며 우리 민족의 통일을 빨리 실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조국통일의 기본원칙이 합의된 조건에서 이제부터는 어떻게 하면 이 원칙을 구현하여 온 민족을 하나로 합치고 조국을 통일하겠는가 하는 구체적인 방도를 찾아야 합니다. 조국통일을 위한 구체적인 방도는 어디까지나 조국통일 3대 원칙으로부터 출발하여 찾아야 합니다. 북과 남이 자주, 민족대 단결, 평화통일의 3대 원칙에 기초하여 깊이 연구하고 진지하게 협의하면 조국통일을 실현하기 위한 좋은 방도를 찾아낼 수 있을 것입니다.

조국의 자주적 평화통일을 위한 합리적인 방도를 모색하기 위하여서는 북과 남 사이의 정치협상을 더욱 발전시켜야 하며 접촉과 대화를 더 활발하게 하여야 합니다.

이번에 북과 남의 고위급 대표들이 직접 만나서 회담을 진행함으로써 정치협상은 이미 시작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북과 남 사이의 정치협상이 시작된 것만큼 앞으로 그것을 더욱 발전시켜 훌륭한 열매를 맺도록 하여야 합니다.

이번에 당신이 먼저 평양에 왔으니 그 답례로 다음 번에는 우리 대표를 서울에 보내려고 합니다. 북과 남의 대표들이 여러 번 오고가는 과정에 서로의 신임이 두터워지고 여러 가지 조건이 성숙되면 최고위급의 회담을 실현할 수도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북과 남의 대표들이 자주 오고가며 대화를 많이 하여야 합니다.

해방 후 거의 30년 동안이나 갈라져 있으면서 생긴 북과 남 사이의 오해와 불신임을 한 두 번의 접촉과 대화로써 다 없앨 수 없습니다. 한 두 번 만나 협의하여 가지고서는 조국통일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도를 다 찾을 수도 없습니다. 이번 회담을 통하여 북과 남이 서로 오해하고 있던 근본적인 문제들을 풀고 중요한 공통점을 찾았지만 조국을 통일하려면 아직 해결하여야 할 문제들이 많습니다. 그것은 오직 북과 남의 대표들이 자주 접촉하고 진지하게 협상함으로써만 해결할 수 있습니다.

북과 남 사이의 대화와 협상에서는 서로 오해하고 있는 문제들을 비롯하여 조국을 통일하는데서 나서는 모든 문제를 다 내놓고 협의하여야 합니다. 무슨 문제든지 의견이 있는 것은 털어놓고 의논하여야지 서로 딴 주머니에 감추어 두고 있으면 문제를 풀 수 없습니다. 비록 자그마한 오해라도 생기면 제때에 내놓고 협의하여 풀어야 합니다.

북과 남 사이의 대화는 어디까지나 서로 이해를 깊이하며 공통점을 찾고 단결을 강화하는 원칙에서 하여야 합니다. 조국을 통일하기 위한 방도를 찾는데서 우리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과 당신들이 주장하는 것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의 주장이 옳은가 하는 것을 가지고 논쟁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논쟁은 어디까지나 공통점을 찾고 단결과 통일을 이룩하기 위한 논쟁으로 되어야지 분열을 위한 논쟁으로 되어서는 안됩니다.

북과 남 사이의 관계를 옳게 조절하며 조국을 통일하는데서 나서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성과적으로 풀기 위하여 북과 남의 공동위원회 같은 것을 조직하여 운영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공동위원회를 조직하여 실제적인 조절사업을 하여야지 그저 일반적인 대화만 하여 가지고는 민족의 단결과 조국의 통일을 위한 사업에서 큰 전진을 가져올 수 없습니다.

공동위원회는 북과 남의 당국이 각각 임명하는 고위당국자를 공동위원장으로 하고 필요한 성원들을 망라하여 조직하면 될 것입니다. 비행기를 타면 평양과 서울 사이를 잠깐 사이에 오고 갈 수 있으므로 당신들이 평양에 오기도 하고 우리 사람들이 서울에 가기도 하면서 공동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공동위원회를 조직하면 거기에서 조절하여야 할 문제들이 많습니다. 공동위원회는 북과 남이 서로 상대방을 비방중상하지 않을 데 대한 문제, 군사적 충돌을 방지할 데 대한 문제를 비롯하여 북과 남 사이의 관계에서 나서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제때에 협의하여 조절하여야 합니다. 공동위원회에서는 서로 자기 의사를 강요하려 하지 말고 제기되는 문제를 단결의 목적에 부합되게 이해를 같이 할 때까지 진지하게 협의하여야 합니다.

평양과 서울 사이에 직통전화를 놓고 제기되는 문제들을 전화를 통하여 수시로 협의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조국통일에 방해되거나 서로 오해할 수 있는 자그마한 문제라도 생기면 인차 전화로 알아보고 협의하여 제때에 풀어야 합니다.

이번에 북과 남 사이에 합의된 조국통일의 3대 원칙은 전체 조선민족이 공동으로 실현하여야 할 통일강령으로 됩니다. 나는 조국통일의 3대 원칙을 세상에 선포하여 전체 조선민족과 세계인민들이 그것을 알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조국통일 3대 원칙을 발표하는 것은 우리 인민들을 교양하는 데도 좋고 세상사람들에게 조선민족의 단결을 시위하는데도 좋습니다. 북과 남이 합의한 통일강령을 발표하면 국내외의 모든 동포들이 우리가 분열된 조국을 자주적으로, 민족 대 단결의 원칙에서 평화적으로 통일하려 한다는 것을 알고 일치한 견해를 가지게 될 것이며 각계각층 인민들이 커다란 고무를 받게 될 것입니다. 민족공동의 통일강령을 발표하면 세계인민들은 조선민족이 단결된 위대한 민족이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며 우리 나라의 통일을 반대하는 외부세력들은 조선민족을 영원히 분열시키려 하여도 결코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것을 똑똑히 깨닫게 될 것입니다.

조국통일 3대 원칙을 언제 어떤 방법으로 발표하는가 하는 것은 앞으로 대화과정에 토론하여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당신이 서울에 돌아가 남조선당국에서 토론하고 북과 남의 대표들이 다시 만나 합의한 다음에 발표하면 될 것입니다.

당신이 모처럼 평양에 찾아온 것만큼 하루 더 묵으면서 우리 일군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좋겠습니다. 우리를 찾아온 당신의 행동은 애국적인 소행입니다. 사람은 애국자가 되어야지 매국자가 되어서는 안됩니다. 사람이란 하루를 살아도 조국과 민족을 위하여 이로운 일을 하여야 영예스럽고 사는 보람이 있는 것입니다.

북과 남 사이의 이번 회담은 성과적으로 진행되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나는 당신이 앞으로 평양에 자주 오기를 바랍니다.

(내일 계속됩니다)

1권 제3장

길림시절

1. 선진사상의 탐구
2. 상월선생
3. 조선공산주의청년동맹
4. 조직을 확대하기 위하여
5. 단결의 시위
6. 안창호의 시국대강연
7. 3부통합
8. 차광수가 찾은 길
9. 왕청문의 교훈
10. 철창속에서

8. 차광수가 찾은 길 (2)

이국땅에서 찬비를 맞으며 걸어갈 때 차광수는 자기에게 힘을 주고 희망을 줄수 있는 올바른 투쟁로선과 지도자를 목마르게 기다렸노라고 고백하였다.

그는 자기의 경력을 다 소개하고나서 이렇게 부르짖었다.

≪성주, 우리 서로 믿음과 사랑속에 공산주의운동을 할 수 없을가? 분파와 헤게모니싸움이 없이말이요!≫

차광수의 그 부르짖음은 혁명의 길을 찾아 만리타향을 헤매던 끝에 그가 찾은 인생총화이며 교훈이기도 하였다.

나도 그의 손을 잡고 우리 새 세대들은 종파분자들처럼 분렬의 길을 갈것이 아니라 한마음한뜻으로 굳게 뭉쳐 혁명의 곧바른 길을 가자고 격해서 말하였다.

차광수는 최창걸을 통해 나를 소개받았을 때의 솔직한 심정도 털어놓았다. 우리가 길림에서 학생운동을 한다는 소식을 듣고 그는 중학생이 맑스-레닌주의를 알면 얼마나 알며 공산주의운동을 하면 얼마나 잘하랴고 생각했으며 그래서 한번 중떠보려는 마음도 먹었다고 숨김없이 고백하였다. 그러니 푸접좋고 덜렁광창인 그를 나는 처음에 똑바우로 알 수밖에 없었다.

차광수는 그후 인차 우리의 ≪ㅌ.ㄷ≫성원이 되였다.

그해 여름에 나는 차광수를 신안툰에 보냈다. 신안툰은 길장연도에서 서쪽으로 얼마 안되는 곳에 있는 자그마한 동네로서 조선의 애국지사들이 리상향으로 개척해놓은 마을이였다. 만주의 조선인거주지역들 중에서도 몇개 안되는 정치운동의 책원지였다. 이 마을을 혁명화하면 농민대중속으로 들어가는 첫통로를 개척할 수 있었다. 나는 차광수에게 그 과업을 맡기고 싶었다.

내가 신안툰마을에 내려가 사업하라고 하자 차광수는 의아한 기색을 감추지 못하였다. 시골에 있다가 운동선을 찾아 모처럼 올라온 사람을 왜 도로 시골로 보내는가고 롱담절반, 진담절반으로 물었다. 남들은 서울이야, 동경이야, 상해야 하고 큰 도회지에서 돌아치며 운동을 하는 것도 성차지 않아 국제당에까지 찾아다니며 바람을 일구는데 손바닥만한 시골에 내려가서야 무슨 일을 치르겠는가고 하는 것이였다. 그는 낡은 운동방식을 반대하면서도 기성관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다.

청년공산주의자 차광수

나는 차광수한테 이런 내용의 이야기를 해주었다.

큰 도시 같은데 틀고앉아 혁명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이다, 우리는 도시건 시골이건 인민이 있는 곳이면 가리지 말고 가야 한다, 우리 나라 인구의 절대다수는 농민이다, 만주지방의 조선사람들도 대부분 농촌에서 살고 있다, 농민들속에 깊이 들어가지 않고서는 조국광복위업에 인민을 동원시킬수 없으며 우리 나라에서 공산주의운동의 승리에 대하여서도 생각할 수 없다, 나도 학교를 마치면 농촌에 가서 사업하려고 한다, 국제당 같은데나 들락날락해야 공산주의자의 명분이 서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도 옳지 못한 사고방식이다, 공산주의자들이 국제당을 존중하는 것은 로동계급의 위업이 국제적 성격을 띠고 있기 때문이며 로동계급의 국제적으로 단합되어야 국제적으로 결합된 자본의 철쇄를 부실수 있기 때문이다, 오직 자기앞에 부과된 민족적 의무와 국제적 의무를 다하기 위해 성실히 투쟁한다면 국제당의 승인도 받을 수 있고 우리가 목마르게 바라는 조국광복의 날도 앞당길수 있을 것이다,…

지금 운동을 한다는 사람들은 모두 우로만 올라가고 있다, 시골에서 고을로, 고을에서 서울로, 서울에서 국제당으로,… 우로 올라가야 축에도 들고 그 무슨 인정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 무산대중을 어떻게 하는가, 우리는 아래로 내려가자, 아래에 내려가 로동자, 농민들 속으로 들어가자.

≪우로 올라갈것이 아니라 아래로 내려가자.≫

차광수는 이 말을 혼자소리로 심각하게 되뇌이고나서 한참동안 생각에 잠겨있더니 책상을 주먹으로 쾅 하고 내리치면서 ≪그것 참 신통한 발견이요!≫하고 부르짖었다.

차광수의 출현으로 하여 ≪ㅌ.ㄷ≫의 핵심력량은 새롭게 보강되었다. 우리의 운동권에는 조선공산당 상층부의 거물들과도 실력을 겨룰수 있는 쟁쟁한 리론가가 등장한 셈이었다.

그때부터 차광수는 3년유여의 세월 우리와 함께 생사고락을 같이하였다. 그는 청년학생운동을 개척하고 대중의 혁명화를 다그치며 항일무장투쟁의 기초를 축성하는데서 불멸의 공헌을 하였다. 신안툰, 강동, 교하, 고유수, 카륜, 오가자, 류하지방의 혁명화는 그의 이름과 떼여놓고 생각할 수 없다.

차광수는 처음에 길림주변 조선인부락들을 혁명적으로 개조하는 사업에 참가하였고 그후에는 길림을 축으로 하는 남만의 류하와 카륜, 고유수, 오가자를 비롯한 중부만주의 조선인거주지들에서 김원우, 계영춘, 장울화, 박근원, 리종락, 박차석 등과 함께 청년들을 집결시키는 사업에 참가하였으며 마지막무렵에는 안도일대에서 반일인민유격대를 창건하는 사업에 참가하였다.

그는 어느고장에 가나 사람들과 쉽게 친숙해졌다. 군중성이 있었기 때문이였다. 사람들은 성미가 덜렁덜렁하고 지식이 해박하며 말주변이 좋은 그를 무척 따르고 존경하였다. 차광수가 가르치던 사회과학과목의 교수는 삼광학교(고유수) 학생들이 제일 큰 기대와 흥미를 가지고 기다리군하던 인기시간의 하나였다. 그는 청년학생들과 농민들을 위해서 강연도 많이 하고 노래도 많이 보급하였다.

백신한의 추도식에서 한 그의 추도사가 아주 유명하였다.

차광수가 제일 자주 다닌곳은 신안툰이었다. 그는 한동안 신안툰의 길흥학교 교원으로 있으면서 이 학교 학감네 집에 거처를 정하고 이 마을 농민들과 청년들, 부녀자들을 혁명적으로 교육교양하였으며 그들을 반제청년동맹, 농민동맹, 부녀회, 소년회 조직에 묶어세워 마을을 혁명화하였다.

신안툰은 민족주의자들과 종파분자들의 영향을 받고 있던 곳이었다. 종파분자들이 이따금씩 가며오며 들려서는 ≪무산계급혁명론≫이요, 무슨 론이요 하고 허황한 소리만 하기 때문에 봉건유습이 강한 이 마을 로인들과 어른들은 사회주의자라면 덮어놓고 머리부터 흔들었다.

그런 고장이어서 차광수도 처음에는 발을 붙이기 힘들어했다. 그는 남의 집 웃방을 얻어 도배도 잘 해놓고 마실방을 꾸려놓은 다음 유식한 늙은이를 한 둬사람 골라가지고 로인들속에서 선전사업을 하게 하였다.

로인들은 밤마다 대통을 등에 꽂고 차광수가 꾸려놓은 방에 마을돌이를 오군 하였다. 그러면 차광수가 준비시킨 로인이 이런저런 이야기를 구수하게 하다가 ≪지

혁명영화 ≪조선의 별≫중의 한 장면

➡

혁명영화 ≪조선의 별≫중의 한 장면

금 세상은 나쁜 세상이야. 이런 세상을 개변하려면 지주놈부터 없애야 해.≫하는 식으로 혁명에 대한 이야기를 몇마디씩 하고 헤어졌다.

이렇게 늙은이들부터 교양한 다음 야학도 내오고 강연도 하고 사람들속에 어울려 춤도 추고 노래도 부르면서 마을을 흥성거리게 만들어놓았다. 마을사람들은 차광수선생이 하는 것과 같은 사회주의라면 자기들도 반대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혁명사업에 발벗고나섰다.

나는 차광수가 신안툰에 자리잡은 다음 토요일이면 학교에서 공부를 마치고 그한테 찾아가군했다. 그때 우리는 적들의 감시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길림교외의 수수밭이나 강냉이밭 속에 들어가 학생복을 농민복으로 갈아입군 하였다.

신안툰에 가서 차광수의 사업경험도 듣고 그의 일손도 도와주었다. 그 과정에 나는 차광수를 더 깊이 리해할 수 있었고 그도 나를 더욱 깊이 알게 되었다.

우리가 차광수를 통해 신안툰마을을 혁명화하기 위한 투쟁을 벌려나가던 어느날이였다. 차광수가 길림에 나타나 나를 북산공원으로 잡아끌었다. 공원의 나무그늘밑에 자리를 잡았을 때 그는 허률이라는 주목할만한 사람이 있다고 하였다. 허률은 룡정에 있는 동흥중학교에 다닐 때부터 혁명사업에 관계했는데 법정대학에 다니려고 얼마전에 길림으로 왔다가 학비곤란으로 포기했다고 하였다.

차광수가 허률에 대해 관심을 가지게 된 것은 그의 배경때문이였다. 그가 하는 말이 허률을 길림에 파견한 사람은 김찬이라는 것이였다. 그때까지만 해도 차광수는 김찬에 대한 환상을 가지고 있었다.

나는 그 말을 듣고 놀랐다.

김찬으로 말하면 우리 나라 초기공산주의운동에서 거물급이였다. 그는 1차공산당때 선전부 책임자로 일하였고 2차공산당을 결성할 때에도 주도적 역할을 놀았다. 그후 체포의 위험이 닥치자 상해로 가서 조선공산당 상해부를 조직하였다. 김찬은 화요파의 대표적 인물로서 조선공산당≪만주총국≫의 실질적인 조직자였다.

그가 자기의 영향밑에 있는 청년을 길림에 파견한 것은 우리에게 눈독을 들이였기 때문이였다. 길림에서 우리가 공산주의기발을 들고 청년학생운동을 벌이고 있다는 소문이 사방에 퍼져가자 그도 우리에게 주목을 돌리게 된 것이다. 우리의 세력이 확대되니 똑똑한 사람들을 보내여 자기네 물을 먹여보려는 것이였다.

김찬자신도 길림에 와서 청년학생들과 많이 접촉하였다. 그는 강연도 여러번 하였다. 나도 김찬의 강연을 들은적이 있었다. ≪맑스주의대가≫가 강연을 한다고 해서 차광수와 함께 그가 숙소로 리용하고 있던 대동문밖 리금천의 집으로 갔는데 혁명실천에 해를 주는 무식한 소리를 하기 때문에 우리는 실망하고 말았다.

김찬은 그날 자기네 파가 조선혁명의 ≪정통파≫라고 하면서 다른 파들을 헐뜯었다. 지어 그는 조선혁명이 무산혁명이기 때문에 오직 로동자와 빈고농만 혁명의 동력으로 될 수 있고 다른 모든 비프로레타리아적 요소들은 혁명의 동력으로 될 수 없다는 당치 않은 주장까지 하였다.

나는 그때 김찬의 연설을 들으면서 그의 주장이 인민대중에게 혼란을 주고 혁명실천에 막대한 해독을 끼치는 위험한 궤변이며 그런 궤변과 투쟁하지 않고서는 우리가 올바른 공산주의운동의 길로 나아갈수 없다는 것을 심각하게 깨달았다.

차광수는 같은 심정이라고 하면서 자기는 그런줄도 모르고 김찬을 숭배해왔다고 하였다.

그 당시 종파분자들은 자기 파의 세력을 늘이려고 도처에서 청년들에게 손을 뻗치였다. 그때 엠엘파의 안광천이라는 사람도 흰 두루마기를 입고 길림에 나타나 공산주의운동의 ≪수령≫으로 행세하면서 자기 세력을 뻗치려고 했다. 그는 한때 엠엘계 공산당의 책임비서를 한 일도 있어 자존심이 이만저만 높지 않았다. 길림에는 그를 ≪맑스주의대가≫로 숭배하는 사람들이 많았다.

안광천이 이름난 리론가라고 차광수가 말하기에 나도 우리의 활동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말을 좀 얻어들을 수 있을가 하여 두어번 그를 만나보았다. 만나고보니 그도 김찬이처럼 연설을 멋들어지게 하였다.

처음에는 그의 연설을 들으면서 다들 감탄하였다. 그런데 그 인상이 얼마 가지 못하고 인차 뒤집혀졌다. 안광천은 대중운동을 무시하는 망발을 했다. 그는 국제당이나 큰 나라의 힘을 빌면 대중투쟁이 없이도 혁명에서 승리할 수 있다고 하였다. 조선과 같이 작은 나라는 대중투쟁을 하느라고 헛되게 피를 흘릴것이 아니라 큰 나라의 덕으로 독립을 이룩해야 한다고 력설하였다. 참으로 사상루각을 지으려는 것과 같은 황당한 궤변이였다.

그래서 나는 이 사람도 역시 김찬과 같은 공리공담쟁이에 지나지 않는구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그에게 선생님의 말씀은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는다고 들이대였다.

선생님은 대중투쟁을 얕보면서 공산당은 왜 조직했고 공산주의운동은 왜 하는가, 이 길림에 와서 사람들에게 혁명에 궐기하라고 부르짖는 것은 또 무엇때문인가고 반문하였다. 그리고 대중을 각성시키고 묶어세워 투쟁에로 부르지 않는다면 몇사람안되는 공산당지도부를 가지고 투쟁에서 승리할 수 없다는 것과 자기 인민을 믿지 않고 남의 덕에 독립을 이룩해보려는 것은 망상이라고 론박하였다.

안광천은 우리가 너무 수준이 어려서 말할 상대가 안된다는 듯한 태도로 그런걸 리해하려면 쓴맛단맛을 다 보아야 하는 거야 하고는 너털웃음을 웃으면서 가버리었다.

그후부터 우리는 그를 상대하지 않았다.

종파분자들은 그때 ≪조선혁명은 프로레타리아혁명≫이라느니, ≪만주의 조선인거주지역에서 먼저 사회주의를 건설해보자.≫느니 하는 따위의 좌경기회주의리론을 들고나오는가 하면 ≪조선혁명은 부르죠아민주주의혁명이며 민족해방이 당면한 목적인 것만큼 혁명에서 령도권을 민족부르죠아지가 장악해야 한다.≫는 우경기회주의적 리론도 들고나왔다.

종파분자들가운데는 조선과 같이 정치적조건이 불리한 특수한 환경에서는 사상운동은 할 수 있을지언정 정치운동은 할 수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독립이 선차이고 혁명은 후차≫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었으며 ≪자본주의를 반대하고 세계무산혁명을 완수하자.≫는 초혁명적인 구호로 대중을 어리둥절하게 만드는 사람들도 있었다.

나와 차광수는 신일용 같은 사람들과도 리론투쟁을 하였다.

많은 종파분자들을 만나보았는데 그들은 례외없이 공명주의와 소부르죠아영웅주의에 물젖은 행세군들이였고 고질적인 사대주의자, 교조주의자들이였다.

이날 나는 차광수에게 김찬이 아무리 소문난 인물이라고 하여도 종파에 이골이 난 사람인 것만큼 환상을 가지지 말라고 하면서 우리는 누구든지 사람들을 대할 때 그의 명성과 경력, 지위를 보기에 앞서 그의 사상과 혁명에 대한 립장, 인민에 대한 관점부터 먼저 보아야 한다고 하였다.

차광수는 공산주의운동에 첫발을 들여놓은데 지나지 않는 우리가 김찬과 같은 거물과 등을 지기보다는 손을 잡는 것이 유리할 것 같아 그랬다고 하면서 허률과 당장 인연을 끊겠다고 하였다.

그가 이렇게 태도를 달리하는 바람에 나는 심중해지지 않을 수 없었다.

허률이 종파에 때묻은 사람이라면 지체없이 모든 관계를 끊어버려야 하겠지만 잠시 길을 잘못든 사람이라면 교양하여 같이 손잡고나가야 했다. 우리는 허률을 직접 만나보기로 마음먹었다.

어느날 나는 차광수의 안내를 받아 허률이 있는 강동

혁명영화 ≪조선의 별≫중의 한 장면

마을로 갔다. 길림에서 송화강다리를 건너 돈화쪽으로 얼마쯤 가면 룡담산이란 산이 보이는데 그 산밑에 있는 마을이 강동이였다. 우리는 거기에 우리의 반제청년동맹조직을 내오고 군중을 교양하여 장차 신안툰과 같이 혁명화된 농촌으로 꾸릴 결심이였다.

허률을 만나보니 사람이 착실하고 진지했다. 어느 모로 보든지 종파의 구렁텅이에 빠지라고 내버려두기에는 아까운 동무였다.

나는 차광수를 붙여 그에게 좋은 영향을 주는 한편 나자신도 강동마을에 자주 가서 여러모로 도와주었다.

허률은 우리의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다. 종파의 줄을 박으려고 왔던 그가 나중에는 종파를 반대하여 김찬과 등을 돌려대게 되었다. 우리는 마침내 강동마을에 혁명조직들을 내오고 그에 기초하여 온 마을을 혁명화할 수 있었으며 허률을 ≪ㅌ,ㄷ≫의 핵심성원으로, 후에는 반제청년동맹과 공청의 지도성원으로 키울 수 있었다.

(끝)

일화

지구의 한끝까지

1977년 6월 어느 날

지중해의 어느 섬나라에 가서 사업하던 대외경제부문의 한 일군이 뜻하지 않는 사고로 심한 부상을 입고 사경에 처해있다는 소식이 경애하는 장군님께 보고되였다.

부상자의 상태는 너무도 엄중했다. 가슴과 허리 어깨와 다리의 뼈가 아홉 군데나 부러지고 소장이 파열되고 폐가 손상된 데다가 머리까지 심한 타박상을 입었다.

그리하여 그 나라의 의사들은 아무리 현대의학이라도 도저히 살릴 가망이 없으니 가족이나 보내라고 한다는 것이였다.

게다가 아직 그 나라에는 우리의 대표부가 없어 신속하게 연계를 취하기도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해당부문의 한 일군을 부르시어 어떤 대책을 세웠는가고 물으시였다.

일군은 환자가 처한 형편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보고 드리고 나서 아무래도 가족을 보내주어야 할 것 같다고 말씀 올렸다.

그러자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머리를 흔드시며 가족을 보낸다는 것은 그를 살려낼 가망이 없다는 것을 말하는 것인데 그럴 수는 없다고 하시면서 가족이 아니라 의사를 보냅시다 그의 생명을 책임지고 담보할 수 있는 준비된 유능한 의료일군을 보내줍시다 내 생각 같아서는 외과전공의 의학박사를 보내는 것이 좋겠습니다 라고 말씀하시였다.

그러시고는 한 의학박사의 이름을 찍으시며 그를 래일 아침 비행기로 보내라는 것과 어느 한 나라에 정부대표단 성원으로 가있는 대외경제사업부의 한 일군을 환자의 치료를 방조하기 위하여 의사와 함께 보낼 데 대하여 지시하시였다. 마지막 숨결을 모으는 이름 없는 전사에게 슬픔의 눈물지을 가족이 아니라 소생의 숨결을 줄 의학박사를 보내주시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사랑을 싣고 이튿날 아침 비행기는 하늘을 날았다.

현지에 도착한 의학박사는 2차에 걸치는 어려운 수술을 성과적으로 진행하여 환자가 15일 만에 정신을 차리고 소생의 빛을 보게 하였다.

이 사실을 보고 받으신 장군님께서는 그 동무가 살았단 말이지요 됐습니다 이제는 내 마음이 놓입니다 라고 하시며 더 없이 기뻐하시었다.

그이께서는 그의 소생에 필요한 최고급의 약들을 많이 보내주며 그가 몸을 움직일 수만 있게 되면 조국으로 데려다가 치료를 받게 하자고 또다시 뜨거운 은정을 베풀어주시었다.

그리하여 얼마 후 사경에서 구원된 그는 비행기에 몸을 싣고 조국 땅으로 돌아오게 되었다.

장군님께서는 그를 중앙병원에 다시 입원시켜 부러졌던 꺾쇠 뼈를 이식 받고 전반적인 육체적 기능이 회복될 때까지 극진한 치료를 받도록 온갖 대책을 다 세워주시었다.

그가 퇴원하게 된 날 아침이였다.

그의 가족들이 병원에 나타났다. 그런데 어찌된 영문인지 아내와 아이들 모두가 여행복차림에 트렁크까지 들고 왔다.

의아함을 금치 못하는 그에게 함께 온 일군이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동무가 완치되었다는 보고를 받으시고 못내 기뻐하시면서 완치되었다고 해서 인차 일터에 보낼 것이 아니라 풍치 좋은 요양소에 보내어 몇 달 동안 푹 쉬우라고 은정 깊은 조치까지 취해주시었다고 이야기하였다.

그러면서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주신 다음과 같은 말씀을 전달해 주는 것이었다.

≪그 동무가 다른 나라에 나가 오랫동안 있었기 때문에 안해와 자식들이 몹시 그립겠는데 요양소에 보낼 때 가족도 함께 가도록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송시

평양의 아침

비전향장기수 이도근

새아침 밝았네 혁명의 수도
발걸음 활기 넘친 영웅의 거리
꿈에도 그리던 그품에 안기어
불타는 신념과 의지를 보네

장군님 부름에 떨쳐나섰네
아 - 나의 사랑 평양의 아침이여

흙마대 돌마대 매고 달리며
고난을 뚫고 헤친 힘찬 발걸음
피바다 불바다 천만리 넘어
백전백승 떨쳐온 조선의 기상

장군님 부름에 떨쳐나섰네
아 - 나의 사랑 평양의 아침이여

선군의 붉은 기폭 노을로 불타
통일된 강성대국 아침 펼치네
백발은 날려도 젊음을 안고
수령위한 이 한생 더욱 꽃피리

장군님 부름에 떨쳐나섰네
아 - 나의 사랑 평양의 아침이여

흠모

김정일각하를 중심으로 하는 조선 인민의 일심단결은 그 무엇으로써도 깨뜨릴 수 없다

≪**김정일**, 당신만 계시면 우리는 이긴다≫, **김정일**민족이 터치는 신념의 목소리가 온 세계에 울려 퍼지고 있다.

이 불멸의 외침에서 세계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두리에 굳게 뭉친 조선의 위대한 일심단결의 위력을 보고 있으며 조선식 사회주의의 필승불패성을 확신하고 있다.

아시아지역주체사상연구소 소장은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제국주의자들과 반동들의 반사회주의 책동이 극도에 달하고 있는 환경 속에서도 조선식 사회주의가 끄떡없이 승승장구하고 있는 것은 수령, 당, 대중의 일심 단결에 기초하고 있기 때문이다. 위대한 주체사상을 모든 분야에 구현하고 있는 조선식 사회주의는 오늘 인류의 이상사회를 건설하려는 세계 진보적 인민들의 희망의 등대로 되고 있으며 그 위력과 불패의 생활력은 세계에 찬란한 빛을 뿌리고 있다. 수령, 당, 대중의 일심 단결에 기초한 조선식 사회주의는 사회주의의 보루로서 새 사회 건설을 위하여 투쟁하는 인민들에게 신심과 용기를 안겨 주고 있다.

파키스탄신문 ≪하이더≫는 ≪조선의 위력≫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다음과 같이 썼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사회주의 보루로 빛을 뿌리는 강력한 나라이다. 때문에 세계는 조선의 사회주의에 대하여 커다란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그 힘의 원천을 알려 하고 있다. 조선에서 특징적인 것은 위대한 사상과 일심단결이다. 위대한 사상은 탁월한 수령에 의하여 창시된다. **김정일**각하는 사상의 천재이시며 영도의 중심이시다. 그이께서는 벌써 세계발전의 먼 앞날까지 밝혀주시었으며 조선식 사회주의가 아무런 편향도 없이 곧바른 길로 나아가도록 현명하게 영도하고 계신다. 하기에 조선인민은 그이를 절대적으로 숭배하고 따르고 있으며 그이께서 가리키시는 길로만 나간다면 그 어떤 시련과 난관도 극복해 나갈 수 있다는 신심과 용기에 차넘쳐 있다. **김정일**각하를 중심으로 하는 조선인민의 사상의지적 단합은 그 무엇으로써도 깨뜨릴 수 없으며 그들이 나가는 앞길에는 승리와 영광만이 있을 것이다.

볼가리아공산당(마르크스주의자)중앙위원회 집행이사회 위원장은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인덕정치라는 새롭고 독창적인 정치방식을 확립하시었다. **김정일**동지의 숭고한 정치이념은 인민대중을 정치의 주인으로 보고 정치가 그들에게 복무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이께서는 근로인민대중이 자유롭고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정치활동의 근본목적으로 내세우고 계신다. **김정일**동지께서는 당과 국가의 노선과 정책을 작성하는데서 인민의 이익을 첫 자리에 놓고 모든 것을 그에 복종시키신다.

인간의 생명을 위하여 천금도 날려보내시고 인민을 위해서라면 그 무엇도 아끼지 않으시는 그이의 위대한 사랑이 주체조선의 당과 국가의 정치적 기초를 이루고 있다는 것은 세상이 다 아는 사실이다.

그이께서 이끄시는 조선노동당의 인민에 대한 헌신적 복무와 인민적 시책, 매 가정에 돌려 지는 사랑과 배려는 당과 수령에 대한 인민대중의 절대적인 신뢰를 낳았고 수령, 당, 대중을 일심동체로 되게 하였다.

3월 2개의 한미합동군사훈련 동시진행

화제의 초점 - 구국의 소리 주체91, 3월 2일

이미 보도된 것처럼 한미연합사령부는 3월에 2개의 한미합동군사훈련을 동시에 진행한다고 지난 2월 28일 밝혔습니다.

한미연합사령부의 발표에 따르면 증원군의 인수, 대기, 전방이동, 주둔군과의 통합작전을 위한 군사훈련(RSOI)과 독수리합동군사훈련이 3월 21일부터 27일까지 진행된다고 합니다.

이것은 미국의 북침전쟁책동이 극히 위험천만한 단계에 도달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으로써 실로 심각한 사태가 아닐수 없습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한반도정세는 미국의 악랄한 대북강경전쟁책동으로 해서 언제 전쟁이 터질지 모를 긴박한 정세가 조성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와서 극악한 미 호전광부쉬는 올해를 전쟁의 해로 선포한데 이어 이북에

대해 악의 축이라고 연일 떠들어대면서 ***********************.

얼마전 부시가 이 땅에 날아들어 주한미군과 이 땅의 호전분자들과 비밀리에 북침전쟁준비를 ****하고 전쟁모의를 벌였다는 것은 이미 공개된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와 때를 같이해 이 땅에서 강행되는 대규모 군사훈련이 북침전쟁으로 이어지게 되리라는 것은 불을 보듯 명백한 사실입니다. 오늘의 엄연한 현실은 미국이 떠드는 남북의 화해와 평화통일의 지지니 이북과의 조건없는 대화니 하는 것들이 저들의 음흉한 북침기도를 숨기기 위한 것이며 이북의 이익이요 뭐요 하는 것들도 이북을 무장해제시켜 손쉽게 타고 앉으려는 목적에서 비롯된 것임을 여실히 입증해주고 있습니다.

극악한 대북강경책동으로 좋게 발전하던 남북간의 6.15공동선언이행의 앞길에 엄중한 장애를 조성하고 무모한 전쟁연습으로 기어코 이 땅에서 북침전쟁의 불을 지르려고 획책하고 있는 미국이야말로 우리 민족의 최대의 숙적입니다.

우리 국민은 오늘의 엄중한 사태를 직시하면서 미국의 침략과 간섭을 배제하고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칠때만이 민족의 화해도 평화통일도 이룩할수 있다는 것을 심각한 교훈으로 찾았을 뿐입니다.

그런데 이 땅의 군호전분자들이 민족의 단합으로 미국의 전쟁책동을 물리칠 대신 그들과 한짝이 되어 민족공멸을 노린 북침전쟁연습책동에 광분하고 있으니 실로 경악할 일이 아닐수 없습니다.

이것은 바로 이 땅의 군호전분자들이 6.15공동선언이행을 통한 우리 민족의 화해와 평화통일을 바라지 않으며 오직 미국의 북침전쟁책동에만 혈안이 되어온 민족반역의 무리임을 백일하에 드러내보이고 있습니다.

한미호전분자들의 전쟁연습책동이 남북의 화해와 평화를 파괴하고 우리 민족을 파멸시키려는 극악한 반민족적, 반인륜적 행위로써 절대로 용납될수 없습니다.

국민여러분은 한미호전분자들의 북침전쟁연습책동이 초래할 파국적 결과에 대해 명심하고 거족적인 반미투쟁으로 이를 저지파탄시켜야 할겁니다.

불을 즐기는 자들은 불에 타죽기 마련입니다.

한미호전광들은 저들의 무모한 광기가 파멸을 앞당기는 길임을 똑바로 알고 비참한 운명에 처하기 전에 북침전쟁연습책동을 당장 철회하는 것이 좋을 겁니다.

(2월 16일 경축행사에 관한 공보 1면에서 계속)

조직별, 단위별로 다채롭게 진행된 경축 노래모임들에서는 축원의 마음안고 활짝 피운 진귀한 **김정일**화들로 화려하게 장식된 속에 ≪**김정일**장군의 노래≫, ≪태양가≫, ≪백두산의 아들 **김정일**장군≫, ≪우리의 마음 노을로 피리≫, ≪**김정일**장군님을 해와 달이 다하도록 따르렵니다≫ 등 **김정일**장군님을 칭송하고 끝까지 따르려는 충성의 찬가들이 힘있게 울려퍼졌다.

또한 ≪구국의 소리≫방송과 ≪구국전선 인터넷≫에서는 2.16경축 특집을 최상의 수준에서 진행하여 각계 민중속에 위대한 장군님에 대한 숭배열기를 더 한층 드높여주었다.

한민전 중앙대표부에서는 뜻깊은 2월 명절에 즈음하여 14일 평양에서 내외 기자회견을 갖고 백두의 천출명장이신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을 21세기의 태양으로, 조국통일의 구성으로 열렬히 흠모하고 따르는 남녘의 민심에 대해 구체적으로 소개하고 장군님의 사상과 뜻으로 숨쉬고 투쟁하며 장군님의 기상과 담력으로 과감히 전진하여 통일조국의 새날을 앞당겨올 한민전 전위투사들과 각계 애국민중의 철석의 의지와 굳은 맹약을 강조하였다.

참으로 한민전과 각계 애국민중은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장군님의 탄신절을 민족최대의 명절로 뜻깊게 경축함으로써 오늘도 내일도 언제나 영원히 주체의 태양이 밝히는 자주의 궤도따라 장군님을 민족의 태양으로 높이 받들어모시고 자주, 민주, 통일의 그날을 향해 더욱 과감히 노도쳐갈 확고한 의지를 만방에 힘있게 과시하였다.

한국민족민주전선 중앙위원회

구국의 소리 뉴스

주체 91, 3월 2일

부쉬반대투쟁 결산 좌담회

부쉬의 방한을 반대하는 각계 민중의 투쟁을 결산하는 좌담회가 지난달 23일 서울시립대학교에서 진행됐습니다.

좌담회에는 오종렬전국연합 상임의장, 문정현불평등한 한미행정협정개정국민행동 상임대표, 서총련 정종성임시의장 등이 참석했습니다. 좌담회 참가자들은 부쉬반대투쟁과정에 느낀 소감에 대한 기자의 질문에 단결해 싸우면 승리할수 있다는 희망을 갖게 됐다면서 이번 부쉬반대운동은 사회전체의 대미의식에서 급격한 변화를 가져온 매우 중요한 계기로 됐다고 평가했습니다. 이들은 부쉬의 전쟁폭언과 방한을 계기로 국민들은 노동자, 농민을 삶의 벼랑으로 몰아간 장본인도, 6.15공동선언이행을 방해하고 살인무기구매를 강요하면서 민족의 살길을 가로막고 있는 주범도 바로 미국이라는 것을 더욱 깊이 깨달았다고 말했습니다. 참가자들은 이번 투쟁이 시민운동과 민족민주운동의 결합으로 진행된 것이 큰 조직적 성과라고 평가했습니다. 이들은 앞으로의 투쟁방향에 대해 논의하고 범국민적인 반미운동을 전망성있게 더 강하게 밀고 나가야 할 것이라고 일치하게 강조했습니다. 이들은 성과에 도취할 것이 아니라 미국과 반통일세력에 대해 더욱 경각심을 높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부쉬반대투쟁 고교생참가

지난달에 있은 부쉬방한반대투쟁에 전국 80여개의 대학, 고등학교 학생단체들이 참가했습니다.

서울대와 한양대, 경희대를 비롯한 수많은 대학들에서는 부쉬방한반대라고 적힌 대형 플랭카드를 내걸었으며 2월 18일부터 20일까지의 사이에만도 41개의 대학들에서 집중적으로 규탄성명을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60여개의 고등학교 학생회모임인 전국고등학생대표자협의회도 군수산업체의 하수인, 전쟁의 노예 부쉬의 방한을 반대한다는 성명을 냈습니다.

학생들은 2월 18일이후부터 도시중심에 달려나와 반미투쟁을 벌였고 특히 미상공회의소, 미대사관, 보잉사, 대구의 미군기지와 같은 미국 기관과 시설들을 목표로 기습점거와 시위를 벌였으며 30여개 대학에서는 400여명의 대학생들이 단식농성을 벌였습니다.

한총련을 비롯한 학생운동세력이 이처럼 광범위한 국민의 성원을 받으며 반미투쟁을 전개한 것은 주목할만한 것입니다. 한총련의 한 관계자는 미국의 대북강경책동, 통상압력, 신자유주의 등으로 인한 민중생존권문제, 노근리, 매향리와 같은 역사적 문제에 이르기까지 한국에서 제기되는 모든 사회적 문제가 원인으로 되고 있는 것으로 하여 이번에 국민적 반미감정이 높았고 대학생들의 일치한 반미투쟁이 일어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한미연합사령부 3월에 합동군사연습

한미연합사령부는 지난달 28일 한국과 미국이 2개의 합동군사연습을 동시에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한미연합사령부는 증원군의 인수, 대기, 전방이동, 주둔군과의 통합작전을 위한 군사연습과 독수리군사연습이 3월 21일부터 27일까지 진행된다고 밝혔습니다.

호전광부쉬가 올해를 전쟁의 해로 선포하고 북을 악의 축으로 몰아붙이며 군사적 공격을 가하겠다고 공공연히 떠들고 있는 것과 때를 맞추어 2개의 합동군사연습을 동시에 강행하려는 것은 매우 심상치않은 군사적 움직임입니다.

특히 부쉬가 한국에 대한 전쟁행각을 단행한후 2개의 대규모합동군사연습을 벌이려는 것은 한반도에서 기어이 북침전쟁을 도발하려는 책동으로써 큰 우려를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노조, 대법원판결에 항의

노조파업에 대한 대법원의 부당한 판결을 규탄해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이 일제히 반박성명을 내는 등 항의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구조조정문제는 파업대상이 아니다라며 지난 98년 조폐공사노조의 파업을 불법이라고 판결했습니다.

민주노총은 이번 판결은 노동자의 유일한 권리보장수단인 파업을 아예 범죄시했다고 비난했습니다.

한국노총은 임금과 노동시간, 해고 등의 문제는 모두 노동조건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써 노사협의와 쟁의행위에 당연한 관건이라며 이를 부인하는 대법원의 판결은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친일반민족행위자 708명 발표

여야의원 20여명으로 구성된 ≪민족정기를 세우는 국회의원모임≫은 지난달 28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일제히 친일반민족행위자라고 자체적으로 선정한 708명의 명단을 발표했습니다. 명단에는 광복후 반민족특위에서 친일반민족자로 규정한 이완용 등 광복회 심의에서 확정된 691명외에 의원모임측이 별도로 심의를 거쳐 포함시킨 16명이 들어있습니다. 민주단 부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정치인으로 부친이 친일명단에 포함된 한나라당 최돈응의원과 부친의 친일행적이 거론되고 있는 이회창총재는 솔직한 고백과 참회를 해야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거세게 일고 있는 반부쉬반미열풍

오늘의 연단 - 구국의 소리 주체91 3월 1일~3일

김현규 : 안녕하세요. 부쉬의 ≪악의 축≫망언과 관련해 반미기운이 세계적 판도에로 번지고 있는데요. 지금 온 세계가 부쉬를 세계의 평화와 안정을 파괴하는 암적 존재, 분별없이 날뛰는 전쟁광신자, 악의 화신으로 낙인하고 부쉬호전집단을 반대하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국민들속에서 반부쉬반미기운이 더욱 높아지고 있는데요. 우리 민중의 반미열풍이 얼마나 거센가는 부쉬의 망언을 규탄하고 부쉬의 행각을 반대하는 투쟁에서 그대로 나타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각계 민중들속에서 높아지고 있는 반미기운과 여기에서 주목되는 몇가지 문제에 관해 알아보려고 이렇게 자리를 같이했는데요.

각계 민중의 반미기운은 부쉬의 악의 축 망언과 부쉬의 한국행각을 계기로 더욱 고조됐죠. 반미투쟁기운이 지금처럼 강한 예는 없었다고 봅니다.

오 일 : 우리 민중의 반미투쟁은 오랜 역사를 갖고 있어요. 하지만 지금처럼 사생결단을 하고 반미투쟁이 강렬하게 전개된 예는 흔치 않아요. 우리 민중의 반미투쟁은 특히 부쉬가 9.11사건후 테러와의 전쟁을 구실로 대북강경일변도정책을 강행하면서 한반도에 전쟁의 먹구름을 몰아오고 지난 1월 미국회에서 한 연두교서라는데서 북을 악의 축으로 규정한 것과 그의 방한을 계기로 절정에 이르렀어요.

부쉬는 9.11사건으로 북을 테러사건과 연관시키면서 테러와의 전쟁을 북에로 확대할 것이라고 공공연히 떠들지 않았습니까. 북을 악의 축으로 규정한 건 바로 그 연장선이라고 볼수 있어요. 북을 악의 축이라고 떠드는 건 한마디로말해서 북에 대한 선전포고나 같은 거죠. 북에 대한 이같은 선전포고는 단순히 북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민족공멸을 가져오는 매우 위험천만한거죠. 각계 민중은 부쉬의 이같은 전쟁광기를 더이상 보고만 있거나 용납할수가 없어 반미투쟁에 분연히 일떠섰던 거예요. 악의 축이라는 부쉬의 망언이 터지자마자 그 다음날인 1월 31일 민중연대, 통일연대, 참여연대, 민주노총, 전국연합, 민변, 자통협, 사회진보연대, 민주노동당, 전농, 민언련, 민교협, 인권실천시민연대 등 600여개 단체로 구성된 전쟁반대평화실현공동실천 대표들은 주한미대사관앞에서 기자회견과 공개서한전달식을 갖고 부쉬의 망언과 부쉬의 한국행각을 단호히 규탄배격했어요.

그들은 서한에서 부쉬가 올해를 전쟁의

해로 선포하고 연두교서에서 북을 악의 축으로 규정함으로써 한반도는 전쟁이 언제 터질지 모를 일촉즉발의 위기상황에 처하게 됐다고 규탄했고 전쟁광신자 부쉬의 방한을 결사반대한다고 했어요.

김현규 : 다른 많은 단체들 역시 반부쉬반미투쟁의 기치를 높이 들었는데요. 전국연합은 성명에서 부쉬의 머리속에는 전쟁생각뿐이라면서 부쉬가 전쟁을 계속 떠든다면 9.11사태보다 더 큰 위협에 직면할것이라고 경고했고 한국청년연합회는 성명에서 부쉬의 한반도긴장조성을 결코 묵시하지 않을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리고 통일연대도 성명을 발표하고 부쉬의 망언은 한반도에 전쟁의 불씨를 옮겨오려는 매우 위험한 처사이고 6.15공동선언이행을 가로막으려는 반통일책동이라고 규탄하면서 우리 국민은 부쉬의 망언, 부쉬의 전쟁책동을 단호히 짓부셔 버릴 것이라고 했습니다. 범민련 남측본부는 논평을 발표했는데요. 논평에서는 북을 악의 축으로 몰아붙이는 미국이야말로 악의 축이라고 규탄했습니다. 한총련 역시 부쉬의 망언은 북과 세계를 상대로 한 전쟁선포라고 낙인하고 전쟁광신자 부쉬의 방한을 결코 용납치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던 겁니다.

이밖에도 언론계, 학계, 종교계 등 모든 단체들과 조직들에서 부쉬의 망언과 부쉬방한을 반대하는 각종 형태의 투쟁을 벌였습니다. 반부쉬반미투쟁은 부쉬의 방한을 계기로 절정에 이르렀죠.

오 일 : 정말 최고조를 이뤘어요. 각계 민중과 사회단체 모두가 반부쉬반미투쟁에 떨쳐나섰으니까요. 부쉬는 이번에 각계 민중의 투쟁이 얼마나 거셌던지 숨도 크게 한번 못쉬고 도둑고양이처럼 기어들었다가 줄행랑을 쳤어요.

부쉬가 이 땅에 발을 들여놓기 하루전인 지난 18일에는 노동자, 농민, 청년학생, 종교인, 문예인, 언론인, 시민사회단체 등 각계층 인사들의 참가하에 700인 평화선언문을 발표했는데요. 선언문에서는 부쉬와 부쉬행정부의 오만하고 부당한 태도에 민족적 분노를 금할수 없다고 지적했고 또한 부쉬가 연두교서에서 한 망언은 군사적 선제공격을 시사한 것이라고 규탄했어요. 선언문에서는 또한 당국이 부쉬에게 전쟁을 반대하는 우리 겨레의 확고한 의지와 행동을 똑바로 보여줘야한다고 주장하면서 우리 겨레의 숭고한 뜻과 굳건한 의지는 그 누구도 감히 막지 못할 것이라고 강조했어요.

부쉬의 방한을 반대해 범청학련 남측본부, 한총련을 비롯한 각 단체들은 격문과 성명서, 결의문을 발표하고 부쉬의 민족분열, 전쟁책동에 맞서 끝까지 싸울 결의를 표명했습니다. 서울대를 비롯한 여러곳에 부쉬의 방한을 배격하는 플랭카드들이 나붙었고 주한미상공회의소가 점거당하고 미대사관에 오물세례를 안기고 성조기를 불태우는 등 반부쉬투쟁은 정말 격렬하게 벌어졌어요.

김현규 : 부산과 광주를 비롯한 각 지방들에서도 부쉬의 망언과 부쉬방한을 반대하는 투쟁이 격렬하게 전개되지 않았습니까.

오 일 : 광주 전남지역에서는 부쉬방한 규탄광주전남대회가 열렸고 부산에서는 민주주의민족통일부산연합을 비롯한 80여개 단체들이 부쉬의 행각을 반대하여 합동기자회견을 갖고 투쟁일정을 발표했어요. 인천지역에서도 인천통일연대를 비롯한 36개 단체들과 각계 인사들이 부쉬를 반대하는 평화선언을 발표했어요. 전역에서의 반부쉬투쟁의 불길은 말그대로 활화산처럼 타올랐어요. 부쉬는 방한 ******* 분노한 각계 민중의 항거에 부딪혔던 거죠.

김현규 : 각계 민중이 벌인 부쉬방한반대투쟁은 상상을 초월한 것이였다고 봅니다. 이번 투쟁을 통해 우리 민중의 반미자주의식이 얼마나 거세고 강렬한가를 똑똑히 보여주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럼 이번에 격렬하게 벌어진 각계 민중의 반부쉬반미투쟁에서 주목되는 문제랄까 이 문제에 관해 알아봤으면 합니다.

오 일 : 이번에 격렬하게 벌어진 각계 민중의 반부쉬반미투쟁은 세계적 판도에서 커다란 파문을 일으켰는데요. 각계 민중의 반부쉬반미투쟁에서 주목되는 문제는 무엇보다도 그것이 각계층과 사회단체 전지역을 포괄하는 범국민적 투쟁으로 확대되고 조직화된 것이라고 할수 있어요. 지금까지는 반미운동이 한총련을 비롯한 운동단체들 중심으로 전개돼 왔죠. 하지만 오늘엔 반미투쟁이 대중적인 투쟁으로 전개됐어요. 이번에 벌어진 반부쉬반미투쟁이 보여주는 것처럼 여기에는 노동자농민단체, 청년학생조직과 종교단체, 각 시민단체, 사회단체들, 여성단체, 학계, 언론계 등 모든 단체들이 적극 참가했어요. 이번처럼 각계 민중, 각 단체가 대중적으로 반미투쟁에 동참한 사례는 없었습니다. 심지어 지금까지 미국을 환상적으로 대하고 숭미공미사상에 물젖었던 사람들과 시민단체들까지 반부쉬투쟁에 적극 참가했고 정계내에서도 부쉬의 망언을 규탄하면서 부쉬의 방한을 반대하는 목소리가 울려나왔는데요, 이건 지금까지 볼수 없었던 거죠.

김현규 : 이번에 각계 민중은 반부쉬반미투쟁에서 조직화되고 단결된 힘을 과시했는데요. 이것 역시 괄목할만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 일 : 그렇죠. 물론 지난 시기에도 반미투쟁단체들과 조직들이 결성되고 조직적인 투쟁을 벌이긴 했지만 그것은 규모도 작았고 투쟁도 제한성을 면치 못했어요. 그렇지만 이번에 벌어진 반미투쟁은 조직화측면과 단결력에 있어서 종전에 비할바없이 큰 변화를 가져왔어요. 앞에서도 얘기됐지만 600여개의 사회단체들은 부쉬정권의 전쟁책동을 반대해 전쟁반대평화실현공동실천을 결성했고 이번에 부쉬의 망언과 부쉬의 한국행각을 반대해 조직적으로 맞서 나섰습니다. 그리고 부산에서는 30여개의 사회단체들이 연합해 부쉬의 행각을 규탄했고 광주전남지역에서는 330여개의 단체가, 서울에서는 297개 단체들이 연합해 부쉬의 망언과 한국행각을 반대해 투쟁해 나섰어요.

노동자, 농민, 청년학생, 종교인, 문예인, 시민단체성원 등 각계층 민주인사들이 참가한 700인 평화선언문발표, 노동자, 농민, 청년학생 등 1만여명의 참가하에 진행된 부쉬방한반대 범국민대회 등은 반부쉬반미투쟁의 조직화측면을 보여

주는 대표적 사례라 하겠습니다.

김현규 : 이번에 벌어진 반부쉬반미투쟁에서 주목되는 문제의 다른 하나는 투쟁형식과 방법에서 다양하고 격렬한 거라고 봐지는데요. 어떻습니까.

오 일 : 그래요. 종전에도 반미투쟁에서는 주한미군철수, 불공평한 한미행정협정폐기, 미군범죄에 대한 공식사과, 민간인학살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와 피해보상 등을 요구해서 다양한 형태의 투쟁을 벌여왔어요. 그러나 형식과 방법에서는 가두시위, 집회, 서명운동, 성명서발표 등에 치우쳤어요. 그러나 이번엔 우리 국민들 모두가 직접 목격한 것처럼 부쉬행각을 반대하는 플랭카드를 도처에 내걸었고 부쉬에게 보내는 공개질의서발표, 격문, 성명서, 논문발표, 기습시위, 주한미상공회의소점거, 주한미대사관앞에서의 기자회견과 시위, 미대사관에 오물투척, 단식투쟁, 성조기화형 등 각종 형태의 투쟁을 벌였고 격렬성에서도 전례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부쉬행각노정을 따라가며 항의투쟁도 벌였어요.

김현규 : 각계 민중들이 내든 반부쉬반미구호도 정말 전투적이고 강렬했다고 보는데요. 이것 역시 주목되는 문제의 하나라고 볼수 있지 않습니까.

오 일 : 지금까지 반미구호들이 많이 제기됐지만 이번처럼 그렇게 부쉬의 심장을 찌르는 그런 구호가 제시된 적은 없었습니다. ≪부쉬는 악의 화신≫, ≪미국은 악의 본축≫, ≪미국은 악마의 제왕≫, ≪부쉬는 제발로 무사히 돌아가지 못할 것이다≫ 등 말만 들어도 정말 가슴 후련한 그런 구호들이 각계층 민중속에서 울려나왔어요.

일반적으로 국가수반들이 다른 나라를 공식방문할때에는 공항에서 환영군중이 나오고 방문노정에는 환영인파로 붐비는 것이 관례로 되고 있지만 이번에 부쉬는 한국행각시 도둑고양이 기어들듯 했습니다. 공항에 도착한 부쉬는 부랴부랴 헬기로 서울로 향했고 우리 국민들앞에는 얼굴 한번 드러내지 못했어요. 부쉬는 우리 민중의 항거에 부딪혀 안절부절 못하다가 줄행랑을 쳤는데요. 이것은 우리 민중의 반미기운이 얼마나 높았는가를 보여준거라고 봅니다.

김현규 : 이번에 각계 민중들속에 벌어진 반부쉬반미투쟁은 우리 국민의 반미자주의식이 얼마나 높고 격렬한가를 온 세상에 똑똑히 보여주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부쉬호전집단이 한반도에 전쟁의 불을 지르려하지만 그들이 끝내 이 땅에 전쟁의 불을 지르면 우리 국민, 우리 온 민족의 거세찬 반미자주화의 불길에 타죽는 결과만이 차례질 거라는 것을 똑똑히 알아야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조선중앙통신

주체 91(2002)년 3월 1일

백두산장군의 기백

로동신문 정론 - 주체91, 2월 28일

강대한 민족의 위용 떨치는 불패의 선군대오앞에 한없이 성스럽고 거룩한 모습이 빛나고 있다.

모질게도 광란하는 지구의 흙먼지바람에도 끄떡이 없이, 세월이 흐름에도 진할줄 모르는 무비의 용맹과 푸르싱싱한 청춘기백으로 선군자주화의 승리의 진군로를 용감무쌍히 열어 가시는 강철의 령장 **김정일**동지,

그이의 모습은 이 세계에 백두산해돋이마냥 눈 부시게도 빛발친다.

그이의 용암처럼 펄펄 끓어 솟구치는 왕성한 기백은 인민에게 필승의 신심과 용기를 안겨 준다.

민족의 모습은 령도자의 모습이며 민족의 기상은 령도자의 기상이다.

백두의 천출명장 **김정일**동지의 모습은 그 어떤 어려움도 이겨 내게 하고 그 어떤 천만대적과도 싸워 승리하게 하는 굳건한 마음의 기둥, 빛나는 투쟁의 기치이다.

준엄한 혁명의 년대들에 언제나 승리의 상징으로 우리 인민의 삶과 투쟁을 고무해 온 위대한 수령의 모습은 오늘 전례 없는 매혹과 감화력으로 천백배의 힘과 용기를 불러 일으키고 있다.

제국주의전쟁미치광이들의 가소로운 허장성세를 가볍게 눌러 디디며 세계 자주화의 방향타를 억세게 틀어 쥐고 나가시는 위대한 정의의 수호자의 모습도 한없이 거룩하다.

고난의 천만리를 헤쳐 가시며 오로지 내 나라, 내 조국의 강성번영을 위하여 끊임없는 현지지도의 길을 이어 가시는 민족의 어버이, 사랑의 장군의 모습도 비길데 없이 숭엄하다.

시련의 년대가 끝없이 계속되고 강성대국의 미래가 눈앞에 펼쳐 지고 있는 오늘, 세계의 자주화를 다그치며 평화를 수호해야 할 인류의 력사적사명이 자그마한 조선의 어깨우에 실려 있는 오늘 우리에게 류달리 커다란 신심과 기쁨을 안겨 주는것은 왕성한 정력에 넘치신 백두산장군의 모습이다.

위대한 장군님을 몸가까이 모시고 오래동안 사업해 온 일군들이 한결같이 매혹과 감동을 금치 못하며 하는 말이 있다.

≪우리 장군님의 정력은 정말 신화적이라고 할만큼 비상하고 무진장하다. 대극장에서 새날을 맞으시며 가극혁명을 령도하시던 그 모습, 그 정열을 그대로 안으시고 오늘도 선군혁명 천만리길을 걸어 가고 계신다.≫

저 백두산의 푸른 기상이 영원한것이듯이 우리 장군님의 혁명열, 애국열, 투쟁열은 날이 갈수록 더욱 뜨겁게만 불 타고 있다.

참으로 놀라움과 신비로움을 금할수 없다.

온 지구의 중압을 한몸으로 감당해 내시며 피눈물의 바다를 헤치고 ≪고난의 행군≫의 폭풍길을 줄달음쳐 오시느라 상상할수 없는 어려움을 겪으신 우리 장군님이시련만 오늘 세계앞에, 인민앞에 서신 그이의 기상은 너무도 열정에 넘치고 투지와 희망에 넘쳐 있다.

혁명의 년륜은 많이도 바뀌였지만 우리의 위대한 백두산장군은 지금도 대극장에서 새날을 맞으시던 그 시절처럼 강성대국의 미래를 열어 가신다.

얼마전 위대한 장군님의 60성상의 혁명활동나날을 수록한 영화화면을 보고 난 사람들은 주체혁명위업계승의 일대 전성기를 펼치시던 그이의 영상을 형언할수 없는 감회속에 우러르면서 장군님의 정력은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이 없이 무한하고 열렬한것이라고 저마다 뜨거운 심정을 피력하였다.

백두의 푸른 기상 한몸에 안고 조선에 솟아 오른 향도의 해발이라고 노래하던 그 열정의 시대가 오늘도 이 땅에 흐르고 있다.

혁명의 북소리는 강산에 넘치고 주체형의 붉은 피는 심장에 끓는다고 웨치던 속도전시대의 열정이 오늘도 계속 이어 지고 있다.

사람들이여,

우리 숭엄한 격정을 안고 더듬어 보자.

이 나라에 고난의 폭풍이 휩쓸고 시련의 눈보라가 사납게도 불어 칠 때 그 모든것을 한몸에 막아 나서신 결사수호의 영웅은 어느분이시였으며 사람들이 제 하나의 운명도 지탱하기 어려운 때 온몸을 불 사르며 강성대국에로 돌진한 기적의 창조자는 어느분이시였던가.

엄혹한 시련을 헤치고 강행군의 돌파구를 여시려고 우리 장군님 결연히 단행하신 저 강계의 잊지 못할 6천여리 눈보라길이 다 말하고 있다.

투쟁이 너무도 힘에 부치고 간고하여 폭풍치는 백두산눈보라로 심신을 가다듬으시려 남 몰래 걸으신 령하 40도의 눈보라 10리길이 다 말하고 있다.

삼복의 무더위와 무더기비, 시간차이로 인한 피로도 무릅쓰시고 무려 20여일간이나 유라시아대륙을 누비여 세계를 놀래우신 우리 장군님의 5만여리장정이 다 말하고 있다.

우리 인민은 아직도 조국의 운명이신 우리 장군님께서 언제 사업을 시작하시고 언제 잠에 드시고 언제 끼니를 에우시는지 모르고 있다.

잊지 못할 1964년의 그 여름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3분의 1에 달하는 시일을 현지지도의 길우에 계셨고 조국과 사회주의의 운명이 판가름되던 지난 준엄한 7년동안에만도 800여개의 무력부문을 비롯하여 1천 수백단위를 찾으시며 근 30만리의 선군혁명령도길을 달음쳐 오신 위대한 장군님이시다.

105만여리!

이 나라 한끝에서 다른 한끝까지 220번이나 오가신것과 맞먹고 드넓은 지구를 근 11바퀴나 도신것과 맞먹는 이 현지지도길을 어찌 수자로만 외울수 있으랴.

참으로 백두산이 낳은 **김정일**장군님께서만이 기록하실수 있는 력사의 기적이다.

물어 보자.

지구상 그 어디에 쪽잠으로 날을 잇고 줴기밥으로 끼니를 에우며 1년 365일 현지지도의 길우에서 혁명령도의 년대기들을 엮는 그런 지도자가 있는가.

새벽 3시, 삼라만상이 깊이 잠든 고요의 이 시간이 우리 인민에게는 너무도 잘 알려 져 있다. 우리 장군님께서 인민들이 올린 편지를 비롯하여 조국과 인민의 운명과 관련한 갖가지 문건들을 바로 이 시간에 보아 주신다.

세상에 정열의 위인들이 많고 많았지만 수십년세월 새벽 3시와 같은 로고의 이야기를 줄곧 남겨 온 위인은 없었다.

지난해 8월 갈마휴양소를 찾으신 위대한 장군님께서 어느 한 방에 놓인 침대를 눌러 보시며 나는 평생 이런 고급침대에서는 자볼것 같지 못해, 허리가 배겨서 못잔다고 하신 그 말씀이 왜 그리도 우리의 가슴을 뜨겁게 울려 주었던가.

우리 장군님은 인간이면 누구나 쉽게 익숙되는 침대의 잠을 달리는 야전승용차의 쪽잠과 바꾸신 위대한 정력의 화신이시다.

천지를 휘감으며 타래쳐 오르는 화산의 용암도 시간이 흐르면 점차 식어 지고 절벽을 부시며 굽이쳐 흐르는 대하의 흐름도 마를 때가 있다.

그러나 정의의 수호명장으로, 인민의 위대한 령도자로 전진하는 시대의 앞장에 거연히 서신 우리 장군님의 심장의 활력은 영원히 진함을 모르며 그이의 기백과 용맹은 날이 갈수록 하늘에 닿고 있다.

실로 위대하고도 매혹스러운 모습이다.

제국주의자들의 기갈앞에 온 세계가 숨죽은듯이 누워 있는 험악한 형세속에서 무한한 담력과 활기에 넘쳐 계시는 우리 장군님의 영상은 얼마나 크나큰 힘이 되는가.

인간의 힘과 젊음의 상징인 열정은 사상과 정신의 숭고함, 포부와 리상의 아름다움, 사랑과 증오의 열렬함에 그 뿌리를 두고 있다.

천고의 백두밀림 소백수골에서 눈보라 폭풍치는 2월에 탄생하신 경애하는 장군님이시여서 그이의 체질은 남 달리 억세고 강하다.

그러나 우리 장군님의 무한대의 혁명적 정력은 타고 나신 백두산체질에만 있는것이 아니라 그이의 심장속에 불덩이처럼 이글거리는 혁명열에 그 진함 없는 원천을 두고 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우리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생전의 뜻을 받들어 조국땅에 사회주의강성대국을 건설해야 하며 하루빨리 조국통일을 실현해야 합니다. 강성대국을 건설하고 조국을 통일하기전에는 시간을 랑비할수 없는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인간은 성스러운 사명과 과제가 있고 아름다운 꿈과 희망이 있으며 고결한 사랑과 헌신이 있을 때 그리고 그 모든것을 꽃피울만 한 의지와 힘이 용솟음 칠때 언제나 정력을 잃지 않는다.

몇해전 1월, 락원의 길을 여시려 대소한의 추위가 몰아 치는 북방땅을 찾으신 위대한 장군님께서 순간의 휴식도 없이 여러 곳을 돌아 보시고 난 뒤였다. 도의 책임일군이 도내 인민들의 지성이 어린 따뜻하고 조용한 곳으로 그이를 모시려하자 인민들의 성의가 고맙다고 무척 기뻐 하시던 경애하는 그이께서는 한동안 생각에 잠기셨다가 이렇게 말씀하시였다.

받들어 주는 인민들을 생각해서라도 나는 더 긴장하게 강행군을 하여야 합니다.

그러시면서 한사코 렬차숙소로 오르신 장군님이시였다.

그 나날 굽이굽이 눈 내리는 얼음길로 승용차를 쾌속으로 몰아 가시던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하신 말씀, 내가 탄 승용차가 너무 빨리 달려 동무들이 따라 오기 힘들다는데 평양을 떠날 때 내가 뭐라고 했는가, 이번 길은 전에 없었던 강행군이기 때문에 신들메를 단단히 조이라고 하지 않았는가, 이제부터 나를 따라 다닐 기질과 능력이 부족하다고 생각되는 사람들은 따라 서지 않는것이 좋다.

뜨거운 입김을 타고 찌렁찌렁 울려 나온 위대한 장군님의 그 음성에 인민을 위한 정열이 얼마나 세차게 높뛰고 있었는가.

혁명가의 정력은 육체적젊음에만 있는것이 아니라 사상과 정신의 위대함과 그것으로 하여 풍기는 생신하고 열렬한 기백에 있다.

자기 조국과 인민의 운명을 피 타는 헌신으로 책임지는 정치가만이 진정으로 고결하고 끝 없는 정력을 떨칠수 있다.

력사에는 나라를 다스린다고 하면서 정치의 병풍뒤에서는 인민의 고혈에서 쏟아 지는 사치와 향락의 폭포를 들쓰며 ≪영원한≫ 미와 젊음을 추구한 집권자들이 많았다. 그런가하면 돈과 권력이 장수의 비결이라고 하면서 치부와 권력쟁탈에 동분서주한 정치가들도 적지 않았다.

그런 자들의 한생은 자주와 진보를 위한 인류력사에 아무런 향기도 남기지 못하고 저주와 규탄만을 자아냈다.

혁명과 인민에 대한 사랑이 한없이 진실하고 강렬하기에 우리 장군님의 정력 그리도 비범한것이다.

인민을 위한 정력, 여기에 경애하는 장군님의 왕성한 기백의 고결함과 성스러움이 있다.

지난해 1월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새해인사를 올리는 전사들에게 눈물 없이는 들을수 없는 감동 깊은 말씀을 하시였다.

그이께서는 전사들에게 동무들은 나에게 축원의 인사를 드린다고 하였는데 나는 그런 인사를 받는것을 좋아 하지 않습니다라고 하시면서 왜 나를 보고 새해에도 건강하여 인민을 위하여 더 많은 일을 해달라고 말하는 사람이 없습니까, 나는 그런 말을 듣는것이 더 기쁩니다라고 말씀하시였다.

우리 장군님은 이런분이시다.

경애하는 장군님의 무한한 정열은 혁명을 위하여, 조국을 위하여 더 많은 일을 하고 싶으신 무한한 사업욕, 만족을 모르시는 투쟁욕이다.

이런 열망, 이런 포부로 고동치기에 그이의 심장은 백두산눈보라의 폭풍력보다 더 드세고 강렬한것이다.

언제인가 밤새 30분밖에 눈을 붙이지 못하시고도 시간이 모자라는것이 안타깝다, 인민을 위하여 모든것을 다바쳐 오신 수령님의 한평생을 생각하면 잠이 오지 않는다, 수령님께서 바라시던대로 우리 인민들에게 하루빨리 행복한 생활을 마련해 주자면 잠을 못 자고 고생을 더하더라도 뛰고 또 뛰여야 한다고 하시며 동틀무렵 현지지도의 길을 다시 이어 떠나신 경애하는 장군님,

노래 ≪더 높이 더 빨리≫를 들으시고 나의 의지를 그대로 반영한 시대의 진군가라고 하시며 이 노래를 부르시면서 전선길을 달리신 경애하는 장군님,

그토록 원대한 포부와 초인간적인 사업열을 안으신 우리 장군님의 위대한 심장이기에 세월의 흐름도 력사의 광풍도 그 억센 고동을 변화시킬수 없는것이다.

그이의 혁명열은 세월을 이긴다.

그이의 투쟁열은 고난을 이긴다.

천만대적이 악을 쓰며 달려 들어도 그이의 든든한 심장앞에서는 무력해 지며 온 우주의 중압이 드리워도 그이의 정력앞에서는 무색해 진다.

만경대와 백두산혁명일가분들의 성스러운 혁명생애가 다 그러했다.

력사의 새벽길을 헤치신 김형직선생님께서도 만경대사립문을 나서시여 무송땅에 이르는 생애의 전 기간 남산의 푸른 소나무의 기개를 순간도 잃지 않으시였다.

우리 수령님께서는 심장의 마지막고동을 멈추는 그날까지 오로지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불면불휴의 정력적인 혁명생애를 엮으신 위대한 정의인, 열의인이시였다.

만경대와 백두산혁명가문의 타고 난 혁명체질이며 고귀한 가풍인 용감한 기백과 왕성한 정력은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시대에 이르러 신화적인 위인전설로 꽃펴나고 있다.

백두산이 사시장철 백설의 기상, 푸르른 기개를 떨치듯이 백두산장군은 어제도 오늘도 혁명적열정과 의기에 넘쳐 계신다.

우리는 군대기백, 청년기백으로 살아 나가야 한다, 전투적이며 혁명적인 기백을 가지고 살아 나가야 한다고 하신 경애하는 장군님의 말씀이 우리의 가슴가슴을 세차게 두드리고 있다.

백두산장군은 언제나 강하며 혈기왕성하시다.

시련 많은 조국을 기어이 륭성번영하는 대국으로 일떠세우기 위하여, 고생 많은 인민에게 기어이 세상제일의 행복을 안겨 주기 위하여 우리 혁명은 걸음걸음 그이의 정력을 요구했다. 그래서 우리 장군님 사랑하는 조국과 인민을 한가슴에 안으시고 사나운 눈보라와 비바람을 맞으시고 험한 령과 세찬 파도도 넘고 지뢰밭도 스치면서 선군혁명 천만리를 달리실 때 뜨겁고 눈부시게 흘러 간 청춘시절을 심장으로 소리쳐 부르신것이 아니던가.

우리 장군님의 사명은 대륙적인 무게를 담고 있으며 우리 장군님의 포부는 우주적인 폭을 안고 있다.

사회주의수호와 세계의 자주화를 위한 력사적의무가 바로 우리 장군님의 두 어깨우에 지워 져 있다. 분렬된 조국을 통일하며 고난을 이겨 낸 조국을 강성대국으로 일떠세워야 할 거창한 민족사적위업이 우리 장군님께 달려 있다. 이 땅에 사는 매 사람의 운명으로부터 사회와 집단, 당과 국가의 운명이 오직 한분 우리 장군님께 맡겨 져 있다.

세계를 한품에 안고 온 민족과 우리 모두를 슬하에 거느리신 우리 장군님이시기에 그이의 심장은 비상한 정열로 높뛰는것이며 그이의 정력은 지구를 통채로 안을만큼 초인간적인 열정의 불길로 되는것이다.

폭풍속에서도 꺾이지 않는 그 정력, 세월속에서도 변하지 않는 그 정력, 로고속에서도 시들지 않는 그 정력,

이것으로 조선이라는 거목은 제국주의 원쑤들의 압살의 광풍도 봉쇄의 가물도 끗끗이 이겨 내고 아지마다 강성대국의 열매 주렁지우며 나날이 푸르러 키를 솟구기만 한것이다.

김일성민족의 앞날은 창창하다.

우리 장군님은 젊으시였고 조국도 인민도 젊었다.

우리 장군님은 붉은기신념의 피, 인민사랑의 피가 펄펄 끓는 열혈장군이시고 인민도 수령숭배, 수령결사옹위의 피가 펄펄 끓는 열혈인민이다.

우리는 어버이수령님께서 한생 들고 오신 사회주의붉은기발을 끝까지 들고 나갈것이며 절대로 다른 길로 나가는것을 허용하지 않을것이다, 이것은 백두산장군의 철석의 의지이다.

천출명장의 서리발기상과 무비의 정력이 전선에 나래쳐 조국은 금성철벽이고 최고사령관의 혁명열이 병사들과 인민들의 천만심장에 불 타올라 혁명적군인정신, 강계정신, 라남의 봉화가 온 나라에 타래쳐 오르고 있다.

강철의 령장의 혁명적젊음과 전투적정서가 강산에 끓어 올라 혁명군가의 장쾌한 선률이 끝없이 울리고 강성대국아리랑북소리가 둥둥 울린다.

백두산해돋이를 받들어 올린 백두산조선은 생동하는 청춘의 나라이며 ≪자유의 녀신상≫아래 전쟁의 폭음이 울리는 악의 제국은 늙고 병들고 괴벽해진 산 송장이다.

인류의 정의와 조선의 미래가 우리의 위대한 **김정일**장군님만을 우러르고 있다.

위대한 장군님을 위하여!

이것은 지구의 평화와 민족의 강성대국을 위한 력사의 신성한 부름이다.

백두산장군의 왕성한 정력의 은덕만을 입고 사는 의리 없는 인간이 될것이 아니라 장군님의 정력에 한줄기 빛과 열이라도 더해 주는 충직한 전사가 되자.

우리 장군님께서 바라시는 일을 하루빨리 실천하고 장군님께 하나라도 기쁨과 만족을 드리는 길이 그이께 의리를 다하는 길이다.

장군님처럼 살고 장군님처럼 투쟁하고 장군님처럼 젊자.

우리 천만의 전사들이 이런 숭고한 혁명관을 삶의 좌표로 세우고 일해 나갈 때 우리 조국은 그 어떤 고난도 뚫고 승리할수 있으며 내 나라, 내 민족은 백두산의 푸른 기상을 안은 강성하는 대국으로 위용 떨칠수 있다.

선군혁명붉은기를 높이 드시고 세계와 민족을 자주의 한길로 이끌어 가시는 위대한 정력가, 절세의 애국자를 진두에 모시고 전진해 나가는 우리의 앞길을 막을자 이 세상에 없다.

조국은 영원히 지지 않는 백두의 푸른 기상을 떨치며 승리와 번영의 한길로 힘차게 전진해 나간다.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께서 선군정치사상을 명시

≪특강≫ 역사에 길이 빛날 선군 영장의 고난의 행군, 강행군 영도 제2회
학사 림종석선생 - **김일성**종합대학 방송강좌 주체91, 3월 2일

안녕하십니까.

전번 시간까지 우리는 여섯번에 나누어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께서 고난의 행군, 강행군을 영도하시면서 이룩하신 불멸의 업적 가운데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는 수령영생위업을 빛나게 실현하신데 대해서 학습했습니다. 이번 시간부터는 네 번에 나누어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께서 독창적인 선군정치방식을 확립하신데 대해서 학습하겠습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제국주의연합세력의 반사회주의 책동이 악랄하게 감행되는 엄혹한 정세하에서 우리식 사회주의를 굳건히 지켜내시여 우리 조국과 민족의 이익, 사회주의의 운명을 수호하셨습니다. 돌이켜보면 지난 고난의 행군, 강행군 시기, 미제를 우두머리로 하는 제국주의연합세력은 우리 공화국, 우리의 사회주의를 압살하기 위해 별의별 책동을 다 감행했습니다. 놈들을 우리 공화국을 압살해서 이 행성위에 사회주의가 없는 일극세계의 질서를 세우려고 무모한 정치군사적 압력과 집요한 경제봉쇄, 그리고 썩어빠진 부르조아사상문화의 침투같은 것을 악랄하게 감행했습니다. 놈들은 말 그대로 필사적으로 발악했습니다. 우리 당과 인민은 제국주의연합세력과 단독으로 맞서 힘겨운 투쟁을 벌리지 않으면 안되였습니다. 그래서 세계의 적지 않은 사람들이 조선이 사회주의 기치를 고수할 수 있겠는가에 대해서 많은 우려를 표시했습니다. 바로 이러한 때에 우리의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께서는 우리나라가 처한 특수한 환경과 조성된 정세를 과학적으로 분석하신데 기초하여 독창적인 선군정치사상을 내놓으시고 빛나게 실현해나가셨습니다.

그러면 이 시간에는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께서 선군정치사상을 명시하신데 대해서 보겠습니다.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셨습니다.

≪군사중시정책은 우리 당이 어느 시대에나 일관하게 견지하여 왔지만 선군정치방식은 최근년간 제국주의자들의 책동과 관련하여 더욱 엄혹해진 정세의 요구를 반영하여 내가 새롭게 정식화하여 내놓은 것입니다.

나는 몇해전에 인민군인들 속에서 높이 발휘되고 있는 수령결사옹위정신과 육탄정신, 자폭정신을 보고 그것을 혁명적 군인정신이라고 하였으며 전당과 온 사회가 그 정신을 따라배우도록 하였습니다.

전당과 온 사회의 혁명적 군인정신을 따라배우는 분위기가 고조되고 군대의 위력이 더욱 높아졌을 때 나는 우리의 영도는 선군영도이고 정치방식은 선군정치라는 것을 밝혔습니다.≫

이상과 같이 지적하셨습니다.

경애하는 장군님의 이 말씀은 주체89(2000)년 1월 1일 준엄한 난국을 이겨내고 강성대국 건설의 새로운 대통로를 열어놓은 선군정치, 선군영도의 자랑찬 노정을 돌이켜보시면서 하신 참으로 뜻깊은 말씀입니다. 경애하는 장군님의 이 강령적 말씀에는 그이께서 선군정치방식을 확립하시고 세상에 선포하시던 잊을 수 없는 역사의 나날들이 뚜렷이 아로새겨져 있습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주체84(1995년 1월 1일 다박솔중대를 찾으시는 것으로부터 선군정치를 시작하셨습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대국상 이후 제국주의 반동들의 반공화국, 반사회주의 압살책동이 더욱 악랄해지고 우리 인민은 유례없는 고난의 행군을 하지 않으면 안되게된 준엄한 정세에 대처하여 총대중시사상과 선군불멸영도의 기치를 더욱 높이 키워주셨습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고난의 행군, 강행군 영도의 나날에 혁명의 기둥이며 주력군인 인민군대를 강화하고 나라의 방위력을 철벽으로 다지는데 선차적인 힘을 돌리시였습니다.

그러시면서 인민군대의 군사적 과업과 함께 가장 어렵고 힘든 경제건설 과제들을 맡겨주시고 군대와 인민이 단합하여 난관을 맞받아 뚫고 나가도록 현명하게 영도하셨습니다.

잊지 못할 이 역사의 나날에 인민군 군인들 속에서 혁명적 군인정신이 창조되였습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인민군 군인들 속에서 창조된 혁명적 군인정신을 전당, 전군, 전국에 일반화하기 위한 사업을 정력적으로 이끄셨습니다. 주체85(1996)년 8월 31일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금강산발전소, 오늘의 안변청년발전소 건설에 참가한 군인들이 혁명적 군인정신으로 세상사람들을 놀래우는 기적을 창조하였다고 높이 평가하시면서 그들이 발휘한 혁명적 군인정신을 전국이 따라배우도록 하여야 하겠다고 하시였습니다.

경애하는 장군님의 현명한 영도에 의해 우리 나라에서는 혁명적 군인정신에 대한 학습과 발전소의 건설전투장에 대한 참관, 견학사업이 집중적으로 조직진행되였습니다. 그리고 출판, 보도, 음악예술을 비롯한 여러가지 선전선동수단을 통해 인민들속에 혁명적 군인정신을 체득시키기 위한 일대 선전공세가 벌어졌습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군대에서 창조된 혁명적 군인정신을 온 사회에 일반화하도록 이끌어나가신데는 군대를 기준으로 하여 사회주의위업 전반을 밀고 나가시려는 의도가 비껴있었으며 그 과정은 곧 장군님의 선군정치방식이 확립되어 구현되는 과정이였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때까지만 해도 군사를 중시할데 대한 경애하는 장군님의 거듭되는 말씀들, 특히 혁명적 군인정신을 온 사회에 일반화할데 대한 가르치심이 선군정치라는 위대하고 독창적인 정치방식으로 어버이 수령님의 유훈을 관철하고 주체의 혁명위업을 완성해 나가시려는 크나큰 뜻이 체현되여 있다는 것을 다 깨닫지 못하였습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고난의 행군, 강행군을 이끄시는 나날에 선군정치이념을 실천에 옮겨가시면서도 그것을 선군정치로 정식화하여 공포하는 일을 서두르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강성대국 건설이 **의 길을 맞이한 주체88(1999)년 초에 이르러서야 자신의 기본정치방식이 선군정치라고 세상에 공포하셨습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주체88(1999)년 2월 8일, 우리가 강성대국을 건설하자면 인민군대를 강화하는 데 계속 큰 힘을 넣어야 한다고 하시면서 선군정치는 나의 기본정치방식이며 우리 혁명을 승리로 이끌어 나가기 위한 만능의 보검입니다 라고 선언하셨습니다.

선군정치이념을 구현해 가시면서도 선군정치라는 표현을 쓰지 않으시다가 일정한 시일이 지난 다음에야 그것을 선군정치방식으로 정식화하여 선포하신 여기에는 언제나 실천을 중시하시고 생활력이 검증된 다음에 통작을 부르시는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의 한없이 깊은 인심과 지략이 비껴 있었습니다.

주체89(2000) 1월 2일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자신께서 한동안 선군정치라는 표현을 쓰지 않으신 의도와 선군정치의 독창성에 대하여 뚜렷이 밝혀주셨습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선군정치사상을 새롭게 정립하심으로써 기성의 그릇된 정치론에 종지부가 찍혀지고 군대가 혁명의 기둥으로서 주체혁명위업의 완성을 위한 전기간에 걸쳐 결정적 역할을 하게 된다는 독창적인 사상이 제시되게 되였습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처음에는 선군정치라는 표현을 쓰지 않았다고, 처음에는 전당과 온사회에 혁명적 군인정신을 따라 배우는 분위기를 세우고 3년이 지나서 선군정치라고 하였다고 하셨습니다.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께서는 계속하시여 만일 처음부터 선군정치를 한다고 하였더라면 군사독재, 군사정권이라는 말이 나왔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제는 누구도 그런 말을 할 수 없게 되였습니다, 선행한 맑스-레닌주의 이론에는 선군이라는 말 자체가 없습니다, 선군혁명노선, 선군정치는 내가 처음으로 내놓은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선군정치는 인류역사상 처음으로 창시된 독창적인 정치방식이며 맑스-레닌주의에서는 상정조차 되지 않았던 전혀 새로운 독특한 정치방식입니다. 사회주의에 관한 선행이론은 사회주의를 건설하자면 반드시 노동계급을 선봉에 내세우고 그에 의거해서 혁명과 건설에 밀고나가야 한다고 보았고 그것은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에서 어길 수 없는 하나의 철칙으로 공유되여왔습니다. 인류 정치사를 돌이켜보면 각이한 정치방식이 나왔고 그중에는 군사를 중시한 정치도 적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런 정치 방식들은 어느 것이나 다 군대를 한갖 정치수단으로 여겼지 정치를 주도해나가는 세력으로는 보지 못했습니다.

사회주의를 건설하는 나라들에서도 군대는 조국보위기능만 수행하면 되는 것으로만 생각하면서 창조와 건설과는 별로 인연이 없는 것으로 여겼습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선행이론과 경험에 구애되지 않으시고 수령님의 총대중시, 군사중시사상을 더욱 심화발전시키시여 선군을 정치이념, 혁명의 노선으로 굳히시고 하나의 완성된 정치방식으로 정식화 하시였습니다. 이것은 위대한 사상이론가이시며 정치원로이신 경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 인류의 정치사에 쌓아올리신 최상의 공적으로, 역사에 길이 빛날 세계사적 업적으로 됩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선군정치사상을 새롭게 정립하심으로써 기성의 그릇된 정치론에 종지부가 찍혀지고 군대가 혁명의 기둥으로서 주체혁명위업의 완성을 위한 전기간에 걸쳐 결정적 역할을 하게 된다는 독창적인 사상이 제시되게 되였습니다. 참으로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에 의한 선군정치, 선군정치방식의 새로운 정립과 구현은 노동계급의 정치사와 인류정치사 발전에서 획기적인 사변으로 되며 주체의 혁명위업과 인류 자주위업의 종국적 완성을 확고히 담보하는 위력한 이론실천적인 무기로 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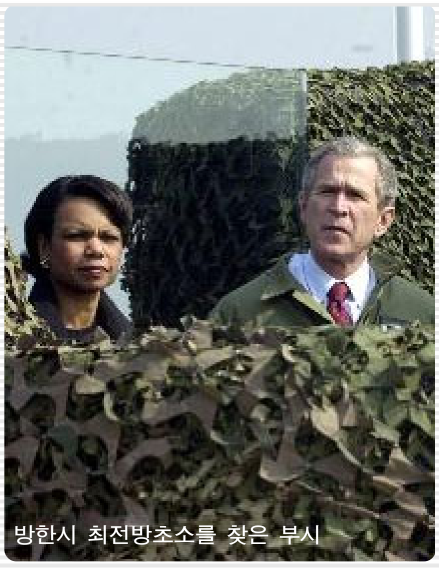
이 시간 강의를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인민군대를 혁명의 기둥으로 내세우기 위한 사업을 조직영도하신데 대해 학습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북-미관계 악재 부를 미 인권보고서

국무부 4일 발표…이라크등 포악 ≪최악≫ 분류
마약밀매 의혹도 제기…북 강력반발 예상

미 국무부가 해마다 전년도 세계각국의 인권상황을 평가하는 인권보고서를 4일(현지시각) 발표할 것이라고 서울의 한 외교소식통이 3일 밝혔다.

이번에 발표될 ≪2001년 세계 인권보고서≫는 이북과 이라크, 중국, 쿠바 등을 인권상황이 최악인 국가로 꼽는 등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의 내용을 담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해당 국가의 강력한 반발이 예상되고 있다.



방한시 최전방초소를 찾은 부시

특히 이북의 경우 지난해에 이어 ≪정부가 일체의 반대를 억누르고 있으며 정치범들은 강제노동수용소에 억류돼 있다≫는 등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져 이북의 인권문제는 가뜩이나 악화된 북미관계의 회복을 지연시키는 악재로 작용될 전망이다.

정부 관계자는 ≪보고서의 발표는 미 국무부의 자체 일정에 따른 것으로 아직 발표시점 등을 통보받지는 않았다≫면서 ≪매년 인권보고서 발표 내용에 대해 강한 반발을 보여온 이북은 최근 조지 부시 대통령의 정권과 주민 분리대응 방침에 대한 비난 등과 맞물려 강력한 반발을 할게 확실시된다≫고 말했다.

이북은 지난해 3월 이런 내용의 국무부 인권보고서가 발표된 데 대해 ≪터무니없는 주장≫이라고 일축하고 ≪대북 적대시 정책의 악랄성을 다시 한번 각성을 하게될 뿐≫이라는 반응을 보였었다.

류재훈기자
한겨레신문 2002/03/03

미 민주당, 부시정부 대테러전 확대 비난

미국 부시 행정부가 아프가니스탄 전쟁 이후 추진하고 있는 대(對)테러전 확대를 놓고 민주당 지도부가 28일 9.11 테러사건 이후 가장 강력한 비난을 제기했다.

톰 대슐 민주당 상원 원내총무는 이날 기자들에게 부시행정부의 대테러전이 ≪적어도 분명한 방향없이 확대되고 있다≫고 비난했다.

그는 대테러전이 지금까지 성공적으로 수행돼온 것은 사실이지만 부시행정부가 현재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를 더 분명하게 설명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대슐 원내총무는 또 ≪대테러전의 성공이 과장됐다고는 생각하지 않지만 이런 성공이 지속될 것인지는 아직 어느 정도 의문이 있다≫고 덧붙였다.

대슐 의원의 발언은 전날 민주당 의원들이 국방부측에서 요청한 3천790억달러의 예산안에 대해 비난을 퍼부은 뒤에 나온 것이다.

상원세출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민주당의 로버트 버드 의원은 국방부 관계자들이 출석한 청문회에서 아프가니스탄 전쟁 이후 행정부가 추진중인 목표에 대한 명확한 이해없이 의회가 ≪백지수표를 발행할 것≫으로 기대해서는 안된다고 경고하면서 ≪우리는 개전 전략을 짜는데는 훌륭했지만 종전 전략을 수립하는데는 그리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일침을 가했다.

대슐 총무는 버드위원장의 발언에 대해 ≪대통령의 국방 예산안에 대해 전반적 지지가 있을 수 있으나 누군가 강력한 질문을 해야 한다≫고 지적하면서 ≪버드만큼 이 일을 잘할 수 있는 있는 인물은 없다≫고 지지를 나타냈다.

민주당 하원 원내총무를 맡고 있는 리처드 게파트 의원도 부시행정부가 지난 몇주간 의회와 충분한 협의를 거치지 않고 일방적으로 대테러전을 확대하고 있다며 불만을 나타냈으며, 조지프 바이든 상원외교위원회 위원장도 부시 행정부가 대테러전을 확대하면서 의회나 동맹국들과 충분한 협의를 거치지 않고 있다며 행정부를 질타했다.

민주당측의 비난공세에 대해 트렌트 로트 공화당 상원 원내총무는 성명을 통해 ≪우리가 대테러전을 벌이고 있고 특히 미군이 전장에 배치된 상황에서 어떻게 조지 W. 부시 대통령을 비난할 수 있는가라고 반문하며 ≪국가를 분열시키려는 시도를 하지 말아야 한다≫고 즉각 비난했다.

김성수기자
오마이뉴스 2002/03/01

전투기 사업, 압력에 밀리나

부시 발언은 F-15 팔려는 압력?

차기 전투기(F-X) 사업 기종 선정을 위한 최종 가격협상이 결렬됐으나 국방부가 이 사업을 계속 추진할 뜻을 밝힌 것은 이해하기 어려운 처사다. 김동신 국방부 장관은 ≪차기 전투기 사업은 경제성도 중요하지만 동맹관계도 중요하다≫며 이 사업을 계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다. 이는 불과 며칠전 국방부 획득실장이 ≪제3차 가격협상이 결렬되면 차기 전투기 사업을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공언했던 것을 뒤집는 것이다.

우리는 4조2천억원이란 엄청난 돈이 들어가는 차기 전투기 사업이 꼭 필요한지에 의문을 갖고 있지만, 국가안보를 위해 군 당국이 꼭 필요하다고 판단한다면 기종 선정 절차만은 공정하고 투명해야 한다고 강조해 왔다. 그런데 참가업체들이 목표가보다 높은 가격을 제시해 배정된 예산을 초과하는 상황임에도, 이미 밝혔던 ≪전면 재검토≫ 발언을 뒤집으면서까지 사업을 계속 추진하겠다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 국방부쪽은 이 사업을 연기하거나 백지화할 수 없는 이유로 공군의 공중전력 공백, 국제 신인도 추락 등을 들고 있으나 설득력이 떨어진다.

국방부의 이런 태도가 항간에서 추측하듯 미국의 구매 압력이나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의 방한과 관련이 있다면 큰 문제다. 군 당국은 차기 전투기 사업에서 공정한 경쟁을 통해 가격을 인하하고 최대한 기술이전을 받는다는 목표를 세웠다. 이런 국익과 직결되는 사안을 특정 국가의 압력에 밀려 정치적으로 결정한다면 주권국가로서의 자주성과 자존심을 내팽개치는 것이다. 그러지 않아도 국방부가 얼마전 기종 선정 방법으로 2단계 평가를 하기로 하고, 2단계에서 ≪국가 안보에 미치는 영향≫ 등 정책적 고려를 하기로 해 미국 보잉쪽에 특혜를 주는 것 아니냐는 논란이 일었다.

최근 부시 미국 대통령의 대이북 강경발언의 배경에 차기 전투기 시장에서 보잉이 성능과 가격 면에서 밀리고 있다는 점과 연결시키는 시각도 있다. 미국 공화당의 지지기반인 방위산업체의 한 축인 보잉이 미국내 경쟁에서 록히드 마틴에 밀려 고전하자 한국에 그 부담을 떠넘기려 한다는 분석이 그것이다. 미국이 그동안 여러 경로를 통해 한국에 압력을 넣었지만, 부시 대통령의 방한 때 최고조에 이를 것이란 예상이 나온다.

한미간의 갈등은 두 나라 모두의 이익을 위해 가급적 피해야 하지만, 갈등을 미봉하기 위해 원칙 없이 무기를 구매하면 앞으로 이런 부당한 압력이 계속 가해질 것이란 점을 정부는 바로 알아야 한다. 국방부는 공정하고 투명한 기종 선정이 어렵다면 연기하거나 백지화하는 방안을 포함해 차기 전투기 사업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

한겨레신문 2002/03/03

국방부, F-X 평가점수 해명

국방부는 2일 공군의 차기 전투기(F-X) 사업의 1단계 평가작업과 관련, 일부 항목의 평가점수를 ≪60~100점≫으로 고정한 경위를 둘러싼 의혹을 적극 해명하고 나섰지만 여진은 계속될 전망이다.

이는 문제가 되고 있는 일부 항목에 대한 평가중 최소 0점이 아닌 60점부터 배점을 주게된 경위에 대해 한국국방연구원(KIDA)의 용역 결과, ≪연구자의 기준≫에 따라 결정된 것이라며 KIDA측에 해명을 미뤘기 때문이다.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평가항목은 국방과학연구소(ADD)에서 맡고 있는 ≪기술이전≫에 관한 부분. 전투기 판매 업체로부터 이전받게 될 핵심 기술에 대해서는 당장 우리 군에 적용할 수 있는지, 기술 가치 여부 등에 관한 판단을 내리기가 애매한 부분이 많다는게 군의 설명이다.

국방부가 배점을 ≪60~100≫으로 확정하고 지난 달 15일 평가기관에 이를 따르도록 네번째 공문을 내려보낸데는 실제 평가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ADD 요원들의 혼선때문이라는게 국방부의 설명이다.

즉 ADD 요원들은 기술 이전이 안되는 부분과 우리측 기준으로 기술 평가가 곤란한 항목에 대해 계량화된 점수를 주기가 곤란하다고 판단, 국방부측에 일관된 통일안을 제시해줄 것을 요구했다는 것이다.

따라서 국방부는 지난해 12월 17일 1차 정책회의를 열어 KIDA가 제출한 용역결과를 토대로 이같은 배점안을 확정했으며, 최근 문제가 된 추가 공문은 새롭게 변경된 것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이전이 되지 않는 기술과 효용가치를 평가할 수 없는 기술 항목에 대해서도 최소 60점을 주게될 경우 변별력이 떨어질 것이라는 의문점은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다.

한편 국방부는 지난 2월 15일 1단계 평가작업을 진행중인 국방조달본부와 KIDA, ADD, 공군 F-X 사업단에 공문을 보내 ≪최하위 요소별 평가는 60에서 100점 사이에서 정량적으로 평가하라≫고 지시해 특정업체 봐주기라는 의혹이 제기됐다.

김귀근기자
오마이뉴스 2002/03/02

조용수 사형 판결은 양심에 따른 것

[대학생, 정치인과 대화] 이회창 한나라당 총재

각종 여론조사에서 차기 대통령 당선가능성 1위를 달리고 있는 이회창총재는 대학가에서 만큼은 그렇지 못하다. 대학생들의 이총재에 대한 반감은 보수적 성향의 정책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이총재를 둘러싸고 불거졌던 ≪아들병역문제≫, ≪부친의 친일경력≫등의 문제들이 강한 대중적 거부감을 불러 일으키고 있기 때문이다.

이총재에 대한 대학가의 거부감은 단순 ≪반감≫으로 그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본격적인 ≪반이회창운동≫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회창 정치활동 감시단≫이 발족되는가 하면 ≪국가보안법과 주한미군 데리고 미국으로 가라≫라는 내용의 노래까지 불리워지고 있다. 이런 분위기 탓인지 이총재는 대학문을 원만하게 들어가 본 적이 없다. 특강을 위해 방문하는 대학마다 대학생들의 육탄저지로 강연이 무산되거나 지연되기가 일쑤다. 유뉴스에서는 대학언론기자들과 함께 대학가의 이런 정서와 여론을 이총재에게 직접 전달하고 이총재의 대답을 들었다.

이회창 비평서는 ≪형편없고 말도 안되는 소리≫

대선 가도의 아킬레스건 9가지를 비롯, 이회창 대세론에 대한 문제제기를 집중적으로 한 비평서≪이회창 대통령은 없다≫(이태준 저, 월간 ≪말≫발행)를 한 대학신문 기자가 들어 보이자 ≪몇 장 읽어 봤는데 내용은 아주 형편없고 말도 안되는 소리더라≫고 일축하는 이회창 총재. 이런 비평서가 출간된 것과 함께 대학가 반미반이회창 움직임에 대해 묻자 ≪비판자체를 탓하는 것은 아니다. 나는 개인적으로 97년 대선 전 혹독한 검증을 받았다≫며 화제의 중심이 되는 정치인이 비판을 통해 검증 받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비판이 허황되거나 중상모략이어서는 안된다고 답변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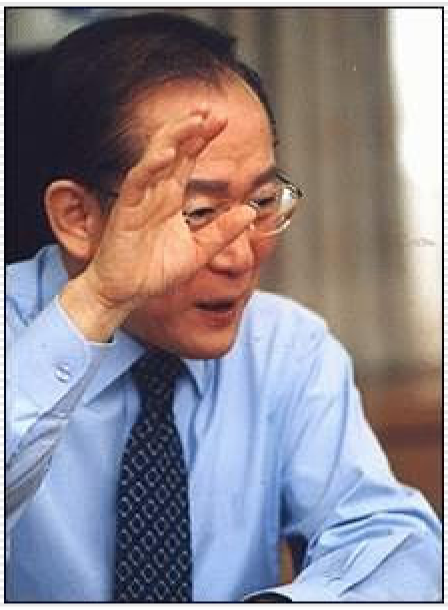
보수색채가 강한 한나라당이 진취적이라고 하는 대학생들에게 어떻게 다가갈 것이냐고 하자 ≪현실문제, 남북문제를 이제 좌우의 개념으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며 ≪20대 젊은 층은 이제 더 이상 이념에 의해 좌우되는 이념세대가 아닌 것 같아 그리 걱정하지는 않는다. 최근 대학생들이 현실에 바탕을 둔 사고를 하는 경향은 긍정적으로 본다≫며 나름의 진단을 내렸다.

최근 부시 미대통령의 방한을 계기로 폭발한 대학생들의 반미투쟁(광화문 이순신 동상 위에서 성조기를 불태우기, 미상공회의소를 점거농성 등)에 대해서는 ≪미국은 우리의 동맹우방국이다. 국가원수가 찾아오는데 성조기를 태우고 반대데모를 하는 것은 잘못된 일≫이라고 하며 이런 행동을 일반적인 반미감정과 연결시키는 것은 옳지 못하다고 주장했다.

강령개정 등 합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대학사회 최대 단체인 한총련에 대해 이 총재는 ≪그동안 한총련의 일부 활동은 법에 위반되는 행동이 많았다≫며 대학초청 특강 때 학생들의 저지로 강연이 무산된 경험(대표적으로 건대 강연이 학생저지로 무산, 학생저지로 15분간 늦었던 충북대 강연)을 사례로 들었다. 또 ≪한총련의 사상과 관련된 실정법 위반 사례에 대해서는 이 자리에서 언급하지 않겠다≫며 우회적으로 한총련의 합법화에 대해서는 부정적 의견을 밝혔다.

한총련 합법화 부정적 시각, ≪실정법 위반 많아≫

남북정상간의 6.15공동선언에 대한 평가를 요구하자 ≪공동선언은 평화정착에 대한 이야기보다는 곧장 통일에 대한 이야기로 넘어간다. 뒷 단계로 와야 할 통일을 지나치게 강조하다 보니 남북관계가 구호로 그치는 폐단을 가져왔다≫며 순서가 틀렸다고 지적하고 한나라당은 이산가족 상봉 등 평화정착을 먼저 실행하고 통일을 위해 나아갈 것이라고 나름의 통일정책을 제시했다.



민족일보 조용수 사장 사형 관련해 사법살인이라는 평가가 지배한 시점에서 대국민 사과를 할 의향이 있냐고 묻는 질문에(1961년 이승만 정권의 실정과 통일을 다뤘던 진보적 신문, 조총련계로부터 자금을 받았다는 혐의로 조용수 사장은 사형선고. 당시 혁명재판소 5명의 판사 중 한 명이 법무사 심판관 이회창총재.) ≪역사적 평가와 사법적 평가는 좀 다르다. 나는 당시 양심에 따라 재판에 관여했고 양심대로 내 의견을 말했고 결과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재판부의 일원으로 변명을 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한편, 박근혜 부총재의 경선불복에 대해 ≪소중한 분이다.당내 민주화의 전통을 이어가길 바란다≫고 이총재가 말하던 그 시각 박부총재는 ≪이회창총재 1인정당으로 가는 한나라당에 더 이상 동참할 수 없다≫며 한나라당 ≪탈당≫을 선언 했다.

백영순/김성헌기자
유뉴스 2002/03/02일

이총재 ≪미끄럼≫ 여야 격차 줄어

여야 대선주자 가상대결에서는 이회창 한나라당 총재 지지자의 상당수가 무응답으로 돌아서면서 여야간 격차가 줄어드는 결과가 나타났다.

우선 이회창 한나라당 총재와 이인제 민주당 고문 구도는 지난달 45.6% 대 35.8%에서 이번에 37.4% 대 33.8%로 격차가 좁혀졌다.(9.8%p→3.6%p)

이 총재 대 노무현 고문 구도는 전달의 51.3% 대 26.6%에서 이번에 39.0% 대 27.0%로 격차감소 폭(24.7%p→12.0%p)이 컸다. 이 총재 대 정동영 고문 구도는 전달의 51.5% 대 24.4%에서 이번에 40.8% 대 24.9%로, 역시 27.1%p→15.9%p라는 변화가 나타났다.

이런 결과는 박근혜 의원의 탈당과 친일 반민족행위자 명단 공개에 한나라당이 부정적 태도를 보인 점이 이 총재의 지지도에 악재로 작용한 것으로 해석된다. 실제로 이회창 대 이인제 구도의 경우 모름·무응답이 지난달 18.6%에서 이번에 28.8%로 늘어남으로써, 이 총재 지지를 밝혔던 응답자들이 상당수 무응답으로 돌아섰음을 짐작케 했다.

민주당쪽에서는 최근 대선후보 경선 텔레비전 토론과 국민선거인단 모집 등 경선 일정이 본격화함에 따라 다소간의 바람 효과를 낸 것으로 해석된다.

가상대결의 밑그림이 되는 정당지지도에서도 같은 흐름이 나타났다. 민주당 대 한나라당은 지난달 18.8% 대 26.3%에서 이번에는 22.5% 대 18.5%의 결과가 나타났다. 그러나 한나라당 지지층에서 나타난 변화가 ≪반짝 혼란≫에 그칠 지, 당분간 지속될 지 여부는 불분명하다.

한편 김근태 고문과 유종근 전북지사, 김중권 한화갑 고문은 이번 조사에서도 이 총재와 30% 안팎의 현격한 격차를 여전히 줄이지 못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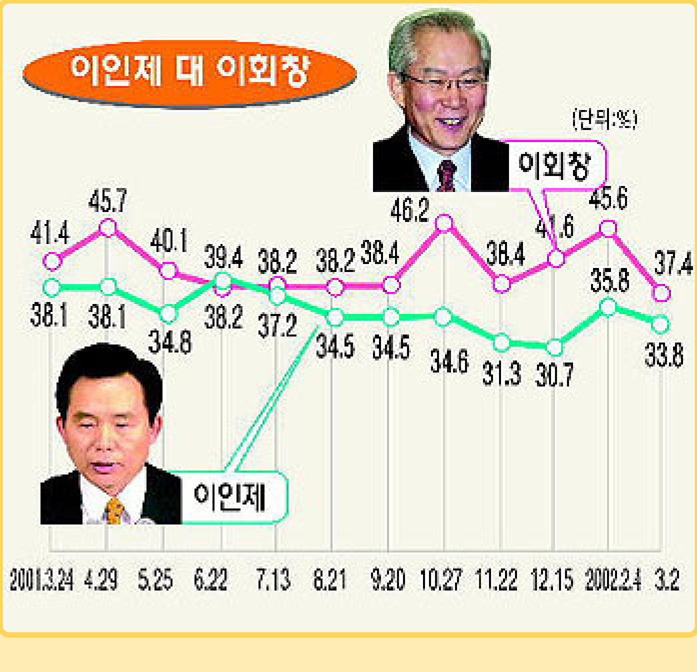
박근혜 의원을 포함한 3자구도 가상대결 결과, 지난달 초 첫 조사에 이어 이번에도 박 의원은 무시못할 지지도를 끌어내며 제3후보로 입지를 굳혔다.

≪이회창 한나라당 총재 34.5%－이인제 민주당 고문 28.8%－박근혜 의원 15%≫라는 조사결과는 지난번의 ≪38.2%－30.8%－17.4%≫ 구도를 오차범위 안에서 그대로 유지했다.

연령별로는 20~30대에서 17%대, 40~50대에서 13~14%대의 지지를 얻었다. 민주·한나라당 지지자가 동시에 박 의원쪽으로 넘어가는 현상도 여전했다. 양자구도상 이인제 지지의 16.9%, 이회창 지지의 12.7%가 3자구도에서 박 후보쪽으로 이동했다.

정당지지와 상관관계를 보면, 한나라당 지지에서 9.3%, 민주당 지지에서 18.4%가 박 의원을 지지해 민주당의 ≪손실≫이 두드러졌다.

박창식/박용현기자
한겨레신문/03/03



대학생들 도심시위 ≪교육재정 확충≫ 요구

교육학생연대, ≪청년학생투쟁대회≫ 개최

지난 28일, 교육부는 교육 학생 연대 소속 학생들과의 면담을 통해 ≪대학 자율화에 대해 대부분이 찬성하고 있다. 또 대학 자율화가 곧 등록금 인상을 말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또 교육부는 ≪대선 공약 당시 교육 재정 6% 확충을 지키지 않느냐≫라는 질문에 ≪우리도 이를 위해 노력할 의지는 많다. 하지만 정부 예산의 문제도 있기 때문에 한계가 따른다. 정부 차원의 재정 부분에 교육 재정을 우선 순위에 두는 것이 중요하다≫고 답했다. 이날 교육학생연대 구정모(서울대 총학생회장) 공동대표를 비롯한 대표단들은 교육부와 30여분간의 면담을 통해 이같은 교육측의 답변을 얻었다.

이에 대해 서울대 구정모 총학생회장은 ≪서울대 총장과의 면담을 통해 대학 자율화는 등록금을 인상하기 위한 것이라고 직접 말했다. 그리고 대부분의 학생들은 등록금 인상을 반대하고 있다. 일전에 많은 사람들이 반대하면 대학 자율화를 철회하겠다고 했는데 어떻게 할 거냐≫라고 말하자, 교육부측은 ≪이미 9일에 법을 바꾸었기 때문에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다≫는 대답했다.

또 교육부는 대학 재정의 민주성 · 합리성 · 투명성과 관련해 대책 마련과 관련해서는 ≪교육부는 일년 내내 수익사업 등 회계와 관련해 학생회관 · 도서관 등에 이와 관련된 내용을 공지하고 홈페이지도 활용하라는 방침을 내린다. 또 이를 공개하지 않을 때에는 지원을 아예 중단하겠다고 말하기도 한다≫고 전했다.

특히 많은 논란이 되고 있는 사립 학교법 개정 비민주적 재단 사립 학교의 분규사태에 대한 질문에서는 ≪사립 학교는 근본적으로 법령에 근거해서 지도해 나가고 있다. 분규가 있으면 감사를 통해 제재하기도 한다≫고 말했다.

이날 면담을 마치며 교육부는 ≪학생들의 입장은 알겠지만 정부의 입장도 있고 폭넓게 서로간의 입장을 이해하면서 해결해 나갔으면 한다≫는 부탁의 말을 전했다.

대표단들의 교육부측과의 면담에 앞서 이날(28일) 오후 종묘에서는 한총련, 전학협, 연대 회의 소속 학생들이 모인 가운데 ≪2.28 청년 학생 투쟁 대회≫를 가졌다.

이번 행사는 △등록금 인상 저지 △대학 재정 운영 투명성 · 민주성 쟁취 △교육 재정 확충 △신자유주의 교육 · 구조조정 저지 △교육 공공성 쟁취 등의 주된 기치로 내걸었다.

서울산업대 김경진 부총학생회장은 모집 단위 광역화와 관련해 ≪몇 년 동안 진행된 광역화 모집에서 과 특성도 고려하지 않은 채 진행돼 허구성이 많다. 그래서 학생들은 제대로 교육도 받지 못하고 권리를 누리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고 말했다. 이어 ≪시장화 · 교육 개방 화를 막아내기 위해 힘써야 한다≫고 덧붙였다. 연대사에서 공공연맹 서형석 사무처장은 ≪교육의 시장화 논리를 정부가 앞장 서 하고 이것을 정책이라고 하니 한심하다. 또 이것의 결과는 학생들의 피폐함으로 이어 질 것이 뻔하다≫고 전한 후 ≪오늘 투쟁을 도화선으로 학생들의 힘찬 투쟁을 기대한다≫고 부탁했다.

이날 발표한 결의문을 통해 ≪국민의 교육권을 박탈하는 교육 시장화 정책을 전면 철회하고 교육의 공공성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교육 정책을 전면 전환해야 한다. 국가 교육 재정을 확충해야 한다. 사립 재단의 불투명하고 비민주적 대학 재정 운영의 쇄신을 위해 정부 역할을 다해야 한다. 국 · 공립대 민영화 정책과 같은 구조조정 정책을 전면 철회 국가 교육 재정 확충하지 않는 등록금 인상 철회해라. 전국의 대학생이 일치 단결하여 교육 시장화 정책 저지 · 교육 개방 저지 등록금 인상 저지 국가 교육 재정 확충, 교육의 공공성 확보를 위해

한편 교육학생연대는 오는 7일, 이와 관련된 기자 회견을 가지고 이날 교육부와의 면담에서 오간 내용들을 발표할 예정이다.

김장효숙기자
유뉴스 2002/03/02

10기 한총련 임시 중앙위 진행

내부 조직 진통으로 3월 개강을 앞두고도 지도부를 꾸리지 못하고 있던 9기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한총련)이 2일 서울시립대에서 임시 의장을 선출하고 10기 한총련 임시 체계를 공식적으로 시작하기 위한 임시 중앙위원회가 개최되었다.

한총련 문예단의 공연이 끝나고 곧이어 한총련 중앙위를 축하하기 위한 각 단체 연대사가 이어졌다. 3일 새벽 한총련 중앙위 사전 조율을 위한 중앙상임위에서 정족수 문제를 두고 논란이 벌어져 중앙위원회 본회의가 시작조차 못하고 있는 상황이 연출되었다. 중앙상임위에서 중앙위로 상정한 안건은 크게 5가지로 각각 △ 10기 한총련 임시의장 및 특기구장 선출 △ 9기 한총련 운동 평가안 △ 10기 간부인준에 대한 건 △ 진보정당 활동방침에 대한 논의 △ 특별결의문 채택에 대한 건이다.

새벽 6시경 중앙위원 성원 문제 등을 의사조정위원회로 넘긴 후 7시 30분 경 의사조정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논의 결과를 발표했다. ≪첫번째 상집 5인 성원 모두 중앙위로 인정하지 않는다.≫ ≪두번째 특별분담금 미납 문제로 논란이 되었던 2개 대학(서울보건대, 인천전문대)은 재정 결의서를 기반해서 중앙위 성원으로 인정한다.≫ ≪세번째 위임문제와 관련하여 모두 다 인정한다≫는 것이다.

논의 결과에 대해 첫번째, 두번째안은 전반적으로 합의하는 분위기이며, 세번째안은 여전히 논방이 계속되었다. 10시경 재차 논의가 시작되었으나 여전히 위임장 처리 문제와 관련한 공방은 계속되고 논의는 좁혀지지 않았다.

당초 2일 3시경 시작예정이었던 한총련 중앙위원회가 27시간을 넘긴 3일 오후 6시경을 넘은 시각 선포됐다. 논란이 되었던 ≪위임장 처리≫에 대한 문제는 앞서 논의한 바대로 한총련 임시의장으로 결의한 전남대 김형주, 경북대 최광용 총학생회장의 ≪중상안에 따른 위임장 처리와 한총련 임시중앙위원회 개최≫ 결의를 존중하는 방향으로 총의를 모았다.

한총련 임시중앙위가 개최된 지 만 32시간만인 3일 저녁 10시 30여분 후보 유세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한총련 임시의장으로 출마했던 경북대 총학생회장 최광용 후보가 마지막 유세발언 자리를 통해 10기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 임시의장 후보를 사퇴했다.

한총련 임시의장에 전남대 김형주 총학생회장이 총유권자 74표 중 찬성 59표, 반대 10표, 무효 5표로 당선되었다.

기사정리 : 김창혁기자
통일아리랑 편집위원회 2002/03/0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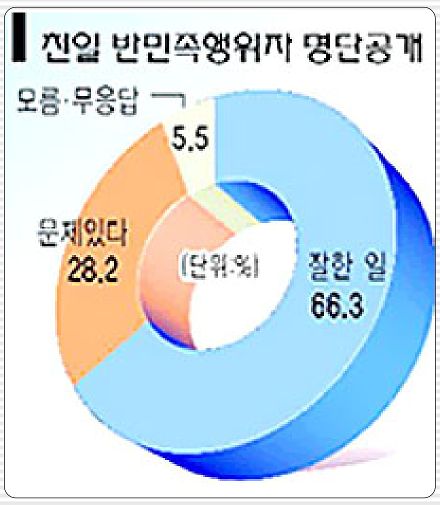
≪친일명단 발표 잘했다≫ 66%

여야 25명의 국회의원들이 친일 반민족행위자 708명의 명단을 발표한 것을 두고 국민들의 66.3%는 ≪과거 일이라도 잘못된 것은 바로잡아야 하므로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결과는 ≪한겨레≫ 여론조사팀이 지난 1~2일 전국의 20살 이상 남녀 700명을 상대로 실시한 전화여론조사 결과(95% 신뢰수준에서 오차한계 ±3.7%)에서 밝혀졌다.

같은 질문에서 ≪과거의 일을 들춰내 나라를 시끄럽게 하므로 바람직하지 않다≫는 응답은 28.2%에 그쳤다. 국회 차원에서 일제하 친일 반민족행위자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자는 제안(국회 민족정기모임)에 대해선 57.8%가 찬성했으며, 반대는 29.1%로 나타났다.

고교 평준화 정책 유지 여부를 물은 항목에서는 ≪유지해야 한다≫가 59.3%,



≪폐지해야 한다≫가 31.8%로 나타났다.

시험을 보지 않더라도 기부금을 내면 대학에 입학할 수 있는 기여입학제와 관련해선 찬성이 35.1%, 반대가 59.3%로 나타났다.

철도 민영화와 관련해선 ≪적자 해소 등 수익성과 경영 효율성을 위해 민간기업이 운영해야 한다≫는 의견이 46.9%, ≪요금인상이나 적자노선 폐지 등 공공성 훼손이 우려되므로 지금처럼 정부가 운영해야 한다≫는 응답은 46.1%였다.

이회창 한나라당 총재, 이인제 민주당 고문, 박근혜 의원을 제3의 신당 후보로 전제한 대선 가상대결에서는 34.5% 대 28.8%, 15.0%의 결과가 나타났다.

박창식기자
한겨레신문 2002/03/03

현 시기 전략적 통일전선과 민족해방혁명의 이론문제에 대하여 (7)

대표집필자 최성원 / 2001년 11월 6일

순 서

1. 두 개의 전선 이외에 다른 전선은 없다
2. 그렇다면 지역통일전선은 무엇인가?
3. 전략적 통일전선을 구축하는 투쟁에서 전술적 공동전선이 가지는 의의
4. 민족민주운동의 미숙성과 그로 인한 전술적 패배
5. 전술적 실패 이후에 무엇을 할 것인가?
6. 민족해방혁명의 승리국면에 대하여
► 7. 민족해방혁명과 조선혁명의 전국적 관점
8. 강고한 민족민주전선을 구축하는 전략문제에 대하여
9. 국가보안법 철폐투쟁의 중요성에 대하여

4) 민족해방혁명을 수행하는 주도역량과 방조역량

민족해방혁명은 북측의 혁명역량과 남측의 혁명역량이 함께 수행하는 혁명인데, 그 수행과정에서 북측의 혁명역량은 주도적 지위와 역할을, 남측의 혁명역량은 방조적 지위와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혁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주도역량이 있으면 방조역량이 있기 마련입니다. 남측이건 북측이건 지역혁명을 수행하는 데서 주력군이 있으면 보조역량이 있는 것처럼, 민족해방혁명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도냐 방조냐 하는 개념은 역량관계에서 결정되는 역할과 임무를 규정하는 개념이지 혁명실천에 대한 주체성과 책임성을 규정하는 개념이 아닙니다.

조선혁명의 전국적 관점에서 보면 북측의 혁명역량이 민족해방혁명을 수행하는 주도적인 역할을 맡은 주도역량으로, 우리 남측의 혁명역량은 방조적인 역할을 맡은 방조역량으로 됩니다.

북측의 혁명역량이 민족해방혁명의 주도역량으로 되는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그 혁명역량이 혁명의 수령을 중심으로 강철 같이 단결되어 있으며, 혁명전통을 전면적으로 계승 · 발전시키고 있으며, 혁명사상으로 무장되어 있으며, 막강한 혁명무력과 혁명적 인민대중을 동원하고 있는, 인류역사상 최강의 정치조직(조선노동당)에 의하여 견고하게 구축된 혁명역량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그 혁명역량은 항미대결전에서 승리하여 민족해방혁명의 승리적 국면을 열어놓았습니다. 우리 민족민주운동의 역량과는 비교할 수 없습니다.

민족의 자주성을 전국적 범위에서 완성하기 위한 민족해방혁명을 북측의 혁명역량이 주도하고 있다는 말은, 남측에서 미 제국주의세력을 제거하는 반미자주화운동이 우리 민족민주운동역량에 의하여 독자적으로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민족해방혁명의 한 구성부분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의미로 됩니다.

여기서 남측의 혁명역량은 민족해방혁명을 수행하는 하나의 능동적 주체로서 방조적 역할과 임무를 수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민족해방혁명을 남측의 혁명역량이 주도적으로 수행하고 북측의 혁명역량이 방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반대입니다.

우리들이 방조역량이라는 개념으로 민족민주운동의 지위와 역할을 설명했다고 해서 우리 민족민주운동을 마치 비주체적이고 무책임하다고 폄하하는 것으로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김철수 동지는 우리들의 관점이 ≪한국변혁에 대한 남측 혁명역량의 주체성과 책임성에 대한 몰이해에 기인한다≫고 지적했지만, 혁명실천의 역량은 주도역량이건 방조역량이건 간에 모두 주체성과 책임성을 지니고 있다는 초보적 인식을 부정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

광고

PDF자료집

반고이즈미

주석님 노작
3 조선노동당 제5차 대회 당중앙위원회 사업총화

회고록
8 9.18사변

주체사상 총서
13 미제의 동맹자들과 앞잡이들을 반대하여 투쟁할데 대한 전략

개념
15 군국주의 –철학사전
15 ≪대동아공영권 ≫–정치사전
16 태평양전쟁 –정치사전
16 일본군국주의 –정치사전

통일혁명당
17 한일유착백서(1978년)

한국민족민주전선
26 3.1자주화투쟁선언
28 일본의 군사적 팽창과 한일간의 군사적 결탁

진상을 고발함 -주체89,6/2
31 한국민족민주전선 대변인 담화
32 한국민족민주전선 대변인 담화

전쟁범죄

재무장 책동

전쟁연습

역사교과서 왜곡

야스쿠니 신사 참배

고이즈미 방한 반대

자주민주통일투쟁위원회
87 반통일세력의 준동을 투쟁으로 분쇄하자
89 일본군국주의라는 폭주기관차의 종착역은 파멸
90 고이즈미 내각은 자폭하라

문제는 그러한 초보적 인식내용을 되풀이하여 강조하자는 게 아니라, 현실적인 역량관계에 기초하여 어느 쪽이 주도적 역할과 지위를 지니고 있으며 어느 쪽이 방조적 역할과 지위를 지니고 있는가 하는 문제를 해명하자는 것입니다.

북측의 혁명역량이 주도하고 있는 오늘의 혁명정세, 통일정세 속에서 남측의 민족민주운동은 방조적 지위를 가지고 방조적 역할을 주체적으로, 책임적으로 수행해야 한다는 것이 우리들의 생각입니다.

김철수 동지가 이러한 우리들의 주장을 ≪사상에서 주체가 서있지 않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고 생각된다≫고 하면서 사상문제에까지 끌고 가려는 것은 우리들의 인식내용에 대한 몰이해입니다.

위에서 지적한 대로, 민족해방혁명은 조미 공동코뮈니케의 채택으로 마침내 승리국면에 들어서고 있다는 것이 우리의 정세인식입니다. 이러한 승리국면의 진입은 북측의 혁명역량이 ≪미제와의 총포성 없는 대결전≫에서 승리하였기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런데 통일전선의 기성이론은 북측의 혁명역량이 미제국주의와의 대결에서 승리하고 있다는 정세인식 위에 성립되었던 이론이 아니라, 장차 승리할 것이라는 역사적 전망에 기초하여, 또는 반드시 승리하고 말 것이라는 혁명적 낙관주의를 반영하여 성립되었던 이론이었습니다.

그 기성이론은 더욱이 남측의 운동권 전반에 민족해방혁명의 요구와 역사적 전망이 아직 불명확하였던 지난 시기에, 반독재 민주화운동을 자기가 수행하는 임무의 전부라고 여기고 있었던 남측의 운동권에게 민족해방혁명의 전략적 요구와 역사적 전망을 제시하기 위하여 성립되었던 이론입니다.

그래서 남측을 강점하고 있는 미 제국주의세력을 제거하는 민족해방혁명의 전략적 요구와 역사적 임무를 남측의 민족민주운동이 수행해야 한다는 사실을 강조하였으나, 민족해방혁명의 전국적 관점은 강조하지 않았으며,

따라서 그 혁명의 수행과정에서 조성되는 주도역량과 방조역량의 관계문제는 해명할 필요가 없었던 것입니다. 통일전선의 기성이론은 오늘의 승리적 국면을 현실로 경험할 수 없었던 지난 시기에 성립되었으므로 그럴 수밖에 없었습니다.

5) 조선혁명의 포괄적 범주와 주체혁명

민족해방혁명, 남측의 지역혁명, 북측의 지역혁명은 조선혁명이라는 포괄적 범주에 포괄되어 있으며, 이 조선혁명을 우리들은 주체혁명이라고도 부릅니다.

북측의 혁명역량은 지역혁명(사회주의혁명)과 함께 남측 지역에서 미 제국주의세력을 제거하는 민족해방혁명을 동시적으로 수행하고 있는데, 이 두 개의 지역혁명을 모두 포괄하는 혁명을 조선혁명이라고 부릅니다. 남측의 민족민주운동이 수행하고 있는 반미자주화운동도 이 조선혁명의 범주에 포괄되는 것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자주적 민주정부를 수립하기 위한 민족해방민주주의혁명(남측의 지역혁명)은 다른 나라의 혁명처럼 독자적인 지위를 갖는 별도의 혁명이 아니라 조선혁명의 구성부분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북측의 지역혁명도 독자적인 지위를 갖는 혁명이 아니라 조선혁명의 구성부분입니다.

조선혁명은 민족해방혁명과 두 지역에서 수행되는 두 개의 지역혁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김철수 동지는 조선혁명을 ≪전국혁명≫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조선혁명(전국혁명)은 세 개의 혁명을 포괄하는 혁명이며, 세 개의 혁명은 하나의 수령, 하나의 혁명적 당, 하나의 혁명전통, 하나의 혁명사상과 혁명이론, 하나의 혁명영도체계에 의하여 견고하게 결합된 혁명의 단일한 주체에 의해서 수행되는 조선혁명의 세 가지 구성부분입니다.

전국적 범위에서 수행되고 전민족적 차원을 가진다는 의미에서 볼 때, 조선혁명이라는 개념과 주체혁명이라는 개념은 동일합니다. (내일 계속)

조국통일3대헌장

북남당국자들간의 협상, 7.4 남북공동성명 (2)

경애하는 **김일성**주석께서는 그와 만나신 자리에서 조국통일 3대원칙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나는 우리 나라의 통일문제는 반드시 외세의 간섭이 없이 자주적으로, 민족대단결을 도모하는 원칙에서 평화적 방법으로 해결하여야 한다고 인정합니다.

(**김일성**저작집 제27권 165페지)

경애하는 **김일성**주석께서는 계속하여 조국통일 3대원칙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 밝히시였다.

김일성주석께서 밝히신 첫째 원칙은 조국통일은 외세에 의존하거나 외세의 간섭을 받음이 없이 자주적으로 실현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정보부장은 그 분께서 제시하신 자주의 대원칙을 받아들이며 자기네들도 절대로 미국이나 일본의 앞잡이가 되지 않겠다고 맹세하였다. 그 분께서는 그것이 진실이라면 대단히 좋은 일이라고 긍정해주시면서 외세의 간섭을 배격하고 조국통일을 자주적으로 실현하려면 사대주의를 철저히 반대해야 하며 오직 조선민족의 단합된 힘에 의거하여 조국을 자주적으로 통일하여야 한다고 강조하시였다.

김일성주석께서 밝히신 둘째 원칙은 사상과 리념, 제도의 차이를 초월하여 민족적 대단결을 도모하여야 한다는 것이고 셋째 원칙은 조국통일은 무력행사에 의거하지 않고 평화적 방법으로 실현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경애하는 **김일성**주석께서는 이상과 같은 세가지 원칙에 기초하여 나라의 통일문제를 해결하자는데 대하여 남측도 찬성하는만큼 조국통일 3대원칙에 대하여 완전한 합의를 보았다고 선언하시였다.

김일성주석께서 제시하시고 남측이 동의한 조국통일 3대원칙은 조국통일문제를 우리 민족의 지향과 요구에 맞게 해결할 수 있게 하는 가장 정당한 원칙이다. 이리하여 마침내 조국통일문제 해결에서 변함없이 틀어쥐고나아갈 근본원칙, 공동의 통일대강이 확정되게 되였다.

조국통일 3대원칙이 합의된 후 평양과 서울을 번갈아 오가는 몇차례의 고위급회담과 실무접촉을 거쳐 7월 4일 드디여 조국통일 3대원칙을 기본내용으로 하는 력사적인 북남공동성명이 세상에 발표되였다.

자주, 평화통일, 민족대단결의 조국통일 3대원칙을 기본내용으로 하는 7.4 공동성명의 발표는 통일문제해결에서 전환적 의의를 가지는 민족사적 사변이었다.

7.4 공동성명은 무엇보다도 온 겨레의 확고한 통일의지를 만방에 힘있게 과시한 첫 공약이였다.

피줄과 언어로 보나, 풍습과 심리정서로 보나 갈라져서는 결코 살 수 없는 단일민족이기에 북과 남, 해외의 동포들은 반세기동안 민족의 통일을 위한 중단없는 투쟁을 줄기차게 벌려왔다. 그러나 그 모든 투쟁은 반통일세력에 의하여 실패와 좌절을 거듭하여왔으며 통일을 기원하고 분렬을 성토하는 일방적인 호소가 통일의지의 메아리만을 남기군했었다.

그러나 7.4공동성명은 그 어떤 저항과 도전에도 불구하고 우리 민족을 기필코 하나로 통일하고야 말것이며 또 자력으로 통일을 이룩할 수 있다는 것, 그 어떤 힘으로도 우리 겨레의 통일의지는 꺾을 수 없다는 것을 일방적인 선언이 아니라 북남 쌍방의 공약으로 세상에 선포했던 것이다.

7.4 공동성명은 또한 통일문제해결에서 확고히 틀어쥐고 나아갈 민족공동의 강령, 공동의 지침을 마련한 력사적 공약이였다.

자주, 평화통일, 민족대단결은 우리 나라 통일문제의 본질, 통일문제와 외세와의 상관성, 민족의 일치한 지향과 요구로부터 출발하여 통일문제해결의 원칙과 방법, 방도 문제를 전면적으로 반영한 대원칙이다. 조국통일의 이 3대원칙이야말로 통일을 원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찬성하고 철저히 의거한 통일의 대강이고 통일운동의 대본이다. 말하자면 조국통일 3대원칙의 확약으로써 그 누구도 금히 허물수도 흔들수도 없는 통일이라는 건물의 견고한 초석이 다져지고 억척같은 기둥이 선 셈이다.

7.4 공동성명이 발표됨으로써 우리 민족은 조국통일을 위한 확고한 담보, 강력한 무기를 가지게 되었으며 공동성명을 어떻게 대하는가에 따라 애국과 매국, 자주와 사대, 민주와 반동이 갈라지게 되었다. 이런 의미에서 7.4 공동성명은 조선의 통일을 반대하거나 원하지 않은 내외의 반통일세력에게는 호된 강타를 안기고 자주를 지향하는 진보적 인류에게는 커다란 고무를 주었다.

참으로 7.4 공동성명은 외세의존로선에 대한 민족자주로선의 승리이고 무력통일로선에 대한 민족대단결로선의 승리이고 총체적으로 분렬세력에 대한 통일력량의 위대한 승리였다. 7.4 공동성명의 발표로 분렬의 고통이 응혈진 가슴들에는 통일의 열기가 끓어번지고 500리 분단의 장벽에는 그것을 노깅는 통일의 서광이 비쳐오게 되었던 것이다.